

號四二八一年五月三十一日(月進)上午十時

國會議

- 一. 開會
- 二. 愛國歌奉唱
- 三. 國旗向對外致敬
- 四. 國旗先烈魂對社致敬
- 五. 議員出席致報告
- 六. 國會議事委員會報告
- 七. 臨時議長推選
- 八. 國會議事規則決議件
- 九. 議長及副議長選舉
- 十. 議長就任辭
- 十一. 休會

討論委員會

- 一. 國會議事委員會報告
- 二. 臨時議長推選事件
- 三. 國會議事規則決議件
- 四. 議長、副議長選舉
- 五. 議長、副議長就任人事

世界速記

第40號

號四二八一年五月三十一日(月進)上午十時

國會議

討論委員會

- 一. 國會議事委員會報告
- 二. 臨時議長推選事件
- 三. 國會議事規則決議件
- 四. 議長、副議長選舉
- 五. 議長、副議長就任人事

討論委員會

- 一. 國會議事委員會報告
- 二. 臨時議長推選事件
- 三. 國會議事規則決議件
- 四. 議長、副議長選舉
- 五. 議長、副議長就任人事

國會議事委員會報告

號四二八一年五月三十一日(月進)上午十時

國會議

討論委員會

- 一. 國會議事委員會報告
- 二. 臨時議長推選事件
- 三. 國會議事規則決議件
- 四. 議長、副議長選舉
- 五. 議長、副議長就任人事

討論委員會

- 一. 國會議事委員會報告
- 二. 臨時議長推選事件
- 三. 國會議事規則決議件
- 四. 議長、副議長選舉
- 五. 議長、副議長就任人事

國會議事委員會報告

會協記速韓大

社人

國會議事委員會報告

國會議事委員會報告

■권두언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 이희규

■신년사 - 새해에는 위기를 기회로 / 홍순관

■논단

I. 문장부호의 중요성 / 임동훈

II.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 - 말한 대로 기록한다! / 홍기표

III.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 읽기 - 구술사료 / 권미현

IV. 공공기록관의 역할과 기록의 활용 / 조영삼

■세미나지상중계 - 제11회 속기학술세미나 / 이봉선

■시 - 그 언제적 나는 / 이정구

■지방의회 소개 - 파주시의회 / 최미영

■해외연수기 - 새의자 / 고경효

■단상 - 조직인으로 사는 길 / 김종두

■다큐멘터리 -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 문선희

■새소식

- 전국법원속기사협의회 발족 / 홍보부

- 법원속기사의 협회가입을 계기로 / 김점동

■문화코너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정향인

■회원동산

- 늘 첫날처럼 / 이순영

- 지리산 / 김재학

- 사 랑 / 김영서

- 아, 이스탄불이여! / 권은선

■새내기속기사

- 나는 이제 더 이상 백수가 아니다 / 김경재

-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 성지연

■협회동정

■회원동정

■편집후기

記錄이 없으면 歷史도 없다?

이 희 규

친애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또 한 권의 속기계를 발간하면서 새해 벽두에 이렇게 권두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속기계의 권호가 늘어갈수록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듯하여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는 비록 속기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한속기협회 회장으로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후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인연을 맺게 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3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민족 전체가 중국의 반역사적 행위에 규탄하는 서명을 한다고 한들 그들에게 어떠한 설득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온 국민을 하나되게 만들었던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지도 않았지만 관련 기록들이 제대로 수집·관리·보존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후대에 일본이 한일 공동 개최였던 월드컵을 일본 단독 개최라고 우긴다면 우리 후손들은 또다시 역사전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기록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줄기에서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소치일 뿐입니다.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현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한동안 ‘정보화사회’, ‘지식경영’, ‘지식기반사회’ 등의 말들이 온 세상을 뒤덮었지만 이제부터의 화두는 ‘倫理’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생각하면 기술이지만 100년을 생각하면 철학입니다”라는 모 자동차회사의 광고카피처럼 이윤을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마저 철학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치인, 재소자들과 공모하는 변호사, 과잉진료를 서슴지 않는 의사, 촌지를 받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교사 등 우리나라 모든 구성원들이 제 자리에서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

모두가 제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새해에는 危機를 機會로……

홍순관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희망의 2004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 협회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7년부터 시작된 국고지원사업의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속기학술세미나와 속기경기대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개최 중이던 지난 12월에 있었던 두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기는 위기라고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거꾸로 위기를 알고 나서 대처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준비된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요즘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은 속기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화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두처럼 요구되고 있습니다. 속기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실시간 개념이 요구되는 등 속기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속기인들에게 위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변화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맞춰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 발휘로 뒤에서 큰 추진력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법원 속기사 100여 명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협회는 시너지에 바탕한 새로운 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집행부도 심기일전하여 협회와 회원들의 위상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새해 아침에 다시는 우리의 결의가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도록 협회와 회원 모두 노력합시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I. 문장 부호의 중요성

임 동 훈

문장 부호는 맞춤법의 일부분으로서 화자나 필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독서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문자 생활에서 긴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그 내용이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 적용상의 융통성이 적지 않아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는 문장 부호와 관련된 표기에 혼란이 적지 않다. 여기서는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을 중심으로 하여 문장 부호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같은 계열의 단어가 연결될 때

‘X1-하다’와 ‘X2-하다’로 분석될 수 있는 경우가 줄어서 ‘[X1 X2]-(하다)’ 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비교 검토하여 이를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X1과 X2는 비슷한 의미 부류에 속해 그 전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간략한 표현을 선호하는 공문서나 격식적인 말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국회 속기록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표현과 관련된 문장 부호 규정을 알아보고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는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이고 또 같은 계열의 단어일 때 그 사이에 가운뎃점을 쓴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예로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같은 계열의 단어가 연속될 때 그 사이에 반드시 가운뎃점을 찍어야

함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이 규정은 이러한 경우에 가운데맺점이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교?검토하여’뿐만 아니라 ‘비교 검토하여’도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묶이는 관계임을 특별히 강조할 때에는 가운데맺점을 쓰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운데맺점 없이 나란히 써도 무방한 것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구문처럼 보이거나 사실은 위와 다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위 안전을 검토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줄여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에는 ‘검토 처리’가 한 단위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여 “위 안전을 검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씀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검토, 처리해’는 “검토한 뒤 처리해”로도 해석될 수 있고 ‘(면밀히) 검토, (신속히) 처리해’처럼 각기 다른 수식어를 취할 수도 있어서 가운데맺점으로 묶어 표기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에 나타난 표현에 관한 바른 문장 부호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가)류와 (나)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앞뒤 문맥이나 글 쓰는 사람의 감각에 달려 있다. (2)의 경우에는 가운데맺점을 쓰는 쪽이 의미 해석의 모호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1)에서 ‘지도 편달’류는 거의 한 단어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가운데맺점을 안 쓰는 쪽이 선호되는 측면이 있으나 가운데맺점을 쓸지 안 쓸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글 쓰는 사람의 감각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 (1) 가. 교류 협력, 연구 개발, 연구 검토, 질의 답변, 지도 편달
나. 교류·협력, 연구·개발, 연구·검토, 질의·답변, 지도·편달
- (2) 가. 남북의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하여
나. 남북의 경제 교류·협력을 위하여

2. 개략적인 수의 표기

개략적인 수를 표기할 때에는 아래의 두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2가)는 수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고 (2나)는 수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 경우이다. 수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고, 수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할 때에는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반점을 쓴다는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른다(이때 반점 다음에서 한 칸 띄어 쓴다). 그러나 (2나)를 ‘4~5 년 전에’나 ‘8~9백억’처럼 쓰면 안 된다. 물결표(~)는 ‘9월 15일 ~ 9월 25일’에서 보듯이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이다.

(2) 가. 사오 년 전에 / 칠팔십 년대 / 팔구백억

나. 4, 5 년 전에 / 7, 80 년대 / 8, 9백억

3. 문장 중간에 보충되는 말의 처리

속기록은 입말을 바로 글로 옮긴 것이므로 문장 중간에 보충되는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때에는 줄표(-)를 사용하여 그 말이 보충된 것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줄표 규정과 이에 해당하는 속기록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때 (4)에서 보듯이 줄표 안의 문장에서는 온점을 찍지 않는 것이 좋다.

(3) 가.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 쓴다.
예: 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나.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예: 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

(4) 지금 정치적인 갈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주당과 열우당이 - 열린우리당을 저는 열우당으로 표시합니다 - 갈등을 가지고 있고, 대선자금 등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재신임 투표로 인해서 국민적 갈등, 찬반 세력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표는 앞의 말을 달리 표현하거나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말을 덧붙일 때도 쓰이므로 줄표가 항상 양쪽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는 줄표가 한쪽에만 있는 경우이다.

(5) 스물세 살의 나이에 데뷔한 소프라노도 혼치 않은데다가 나는 이탈리아

아인도 영국인도 아닌 한국인이었다 — 한국인이 서양의 오페라 무대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것이다.

한편 위와 비슷한 경우에 줄표 대신 반점을 사용할 때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 예처럼 특정한 표현이 문장 중간에 끼어든 경우는 반점을 씌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6가, 나)에서 보듯이 관련 표현이 다른 자리에 끼어들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6) 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나.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나. 철수는,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미소를 띠고 그들을 맞았다.

4. 인용문 속의 마침표

인용문이 다른 문장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인용문 마지막의 마침표(온점)는 생략해도 좋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큰따옴표 규정의 보기 중에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문장이 있어 내포된 인용문 마지막에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규정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의 마침표는 없어도 의미 해석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각적으로도 좋지 못하여 (7)과 같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쪽이 선호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행이 바뀌는 경우는 (8)과 같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7) 가. “모두 내리세요” 하는 소리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하였다.

나. 어린 그들의 약속은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 갑시다”였다.

(8) 가. “눈이 온다.”

하고 미혜가 갑자기 교실이 떠나가도록 소리쳤다.

나. 헌법 제7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것은 국민투표가 국가적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임만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의미상 연관된 문장이 나열될 때의 반점 표시

종결어미로 끝나는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결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더라도 의미상 그 뒤의 문장과 한 덩어리로 묶일 때에는 마침표 대신에 반점을 표시할 수 있다(물론 이 경우 반점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도 좋으나 뒤 문장이 짧으면서 앞 문장을 재차 확인하는 기능을 할 때에는 반점을 찍는 쪽이 자연스럽다). 아래 예에서 (9다)는 여러 문장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예이다.

(9) 가. 제가 작년에 인사위원회 간부 중에서 지방대학 출신이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나. 그건 이미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다. 너희 나라 말이 있느냐, 있다, 고유한 글자도 있느냐, 있다, 학교에서 그것으로 된 교과서로 가르치느냐, 그렇다. 이런 문답이 오고간 다음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우리를 인정하려 들곤 하였다.

6.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하고’, ‘라고’는 직접 인용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하고’, ‘라고’ 앞에서는 큰따옴표를 해야 옳다(물론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내포된 따온 말을 가리키거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가리킬 때에는 작은따옴표를 함이 일반적이다). 다만 ‘하고’는 그 앞말과 띄어 쓰고 ‘라고’는 그 앞말과 붙여 쓴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고’는 간접 인용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고’ 앞에는 인용 부호를 표시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10) 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대통령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원과 검찰을 모욕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앞의 말을 나열한 뒤 그 뒤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일 때

국회 속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열하고 그 뒤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는 표현법이 많이 발견된다. 이때에는 앞에 나열된 사항들과 뒤의 주장 사이의 관계에 따라 반점과 줄표, 줄임표가 쓰일 수 있다. 앞에 나열된 사항들과 뒤의 주장 사이에 큰 휴지가 없을 때에는 반점 표기만으로도 족하지만, 상당한 휴지가 있을 때에는 줄임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앞에 나열된 사항을 달리 표현하거나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말을 덧붙일 때에는 줄표를 씀이 일반적이다.

(11) 가. 작년에도 태풍이 와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에 피해를 입고 또 금년에 피해를 입고 밤낮 태풍만 오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재산 손실이 있어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가. 작년에도 태풍이 와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에 피해를 입고 또 금년에 피해를 입고 밤낮 태풍만 오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재산 손실이 있어야 되고 ……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나. 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재신임 투표하자고 나오고 - 진짜 국가 장래가 암담해집니다.

(한림대 국문과 교수)

II.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 말한 대로 기록한다!

홍 기 표

언어 이면의 정보

한때 인기 TV 드라마였던 ‘야인 시대’의 한 장면 — 의장석에 등단한 최순주 국회 부의장은 개의를 선포한 후 바로 의사일정과 상관없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의원 여러분! 이틀 전 저 최순주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아니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병옥, 신익희, 장면, 유진산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눈을 깜빡거리며 의아한 표정이다. 최순주 부의장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오늘 무엇이 죄송하고 하니, 이틀 전에 우리 의원들이 투표를 했던 그 개헌안 표결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회를 잘못 보아서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지난번 저는 개헌안 표결을 부결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결이 아니었습니다.”

야당 의석에서는 뭐, 뭐야? 하면서 붓물이 터지듯 와글대며 시끄러워진다. 최순주 부의장은 아랑곳없이 말을 잇는다.

“전일 개헌안 부결을 선포한 것은 정족수 계산상의 착오로써 잘못 부결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아 부결 선포를 취소하고 본 개헌건(改憲件)의 표결이 가결되어 통과되었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멍하던 야당 의원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고, 젊은 이철승 의원이 달

러 나가 최 부의장의 떡살을 잡고 혼든다.

“에이, 나쁜 놈아! 야, 최순주! 너는 민주주의의 반역자야. 어떻게 부결이 가결이 되나?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어? 당신이 도대체 국회 부의장이 맞아?”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단상으로 달려 나오고, 명패가 날아가고, 명패에 맞은 경위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그때 조병옥이 이기봉 의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무란다.

“이보시오, 이 의장! 하늘이 보고 있는 일ियो. 백주 대낮에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이 와중에 자유당 의원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는데, 그때 방청석에서 일군의 잠바부대들이 일어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이정재를 비롯한 동대문 주먹패들이다.

“야, 조병옥!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니가 언제부터 야당이야?”

주먹패들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협박을 해 댄다.

“거기 김영삼이, 이철승이도 조용히 해라. 죽고 싶지 않거든 조용히 해!”

주먹을 흔들며 대며 한꺼번에 난리를 치니 장내의 소란은 어느새 주먹패들의 그 엄청난 목소리들에 압도되어 버리고 만다. 야당 의원들은 멍해서 그쪽을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때 조병옥이 대로하여 소리를 지른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어디 있나? 불한당 놈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겁을 주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노? 저기 저놈, 저놈은 내가 알아. 자유당 감찰부장 저놈! 저놈을 끌어내!”

이런 아수라장 가운데 김두한과 이정재의 시선이 강렬하게 교차되면서 해설이 뒤따른다.

“이정재의 방청석 난동! 당시 자유당 ‘감찰부 차장’이었던 이정재를 이때 조병옥은 잘못 불러 ‘감찰부 부장’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국회속기록에 생생한 협박의 증거로 남아 있다. 주먹들이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국회를 위협하는, 이 있을 수 없는 현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 유진산이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밝혔던 것처럼 초기 헌정의 어두운 종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잘못 발언한 단어나 숫자’는 이를 바로잡아 준다! 이는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거의 모든 속기사들이 금과옥조로 지켜 오고 있는 속기

록 작성의 원칙이다. 글쓴이 또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록해 왔다. 그래서 속기 실무를 하는 동안 잘못된(?) 발언들을 무수히도 많이 고쳐 주기도 하고 바꾸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편집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새삼 발견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발언상의 오류를 시정해 주려는 속기사들의 그러한 노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기록에서는 또 다른 오류를 생산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사오입 개헌안의 날치기 통과 당시 조병옥은 분명히 발언상의 오류를 범했다. 자유당 감찰부 차장인 이정재를 감찰부 부장이라고 한 것이다. 담당 속기사가 조병옥 의원의 발언상의 오류를 인지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말한 그대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그 속기록을 통하여 겉으로 표현된 언어 이면의 또 다른 정보를 읽어 내게 된다. 그 정보란, 조병옥 의원이 실제로 이정재가 자유당 감찰부 차장이 아닌 부장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게 정보로서 무슨 가치가 있는냐고 묻는 이가 있겠지만 발언에 대한 가치판단은 속기사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몫이요, 후대 역사가들의 몫이다. 속기사 임의의 가치판단에 의해 속기록을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 드라마에서도 조병옥이 이정재를 만났을 때 ‘감찰부장’으로 호칭하자 이정재가 이를 시정해 주는 장면이 나온다.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캐내는 작업은 ‘말한 대로의 기록’ 속에서라야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조병옥은 이정재가 자유당 감찰부 차장임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여 ‘감찰부장’이라고 잘못 발언을 한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험악했음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것이다. 만일 속기사가 이를 인지하고 ‘감찰부 차장’으로 바꾸어 주었다면 사실적인 정보의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이면의 또 다른 정보를 이만큼 생생하게 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보를 읽어 내는 것은 상상력이 그만큼 풍부한 사람이라야 하겠지만.

말실수를 바로잡다 보면

김영환 의원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불신 또 상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존경하는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과 마찬가지로 경수로사업의 중단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것은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수로사업은 남북교류 통로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세현 우선 지금 통일부는 '부총리' 부서가 아닙니다. 98년부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수로에 무슨 통일된 뒤에 그것이 우리 자산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맥락에서 이 사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고 -(후략)-

위 예문은 제241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의 일부이다.

기록만으로 보면, 김영환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처음에는 '장관'이라 호칭하고 다음에는 '부총리'로 호칭한다. 그러자 통일부 장관은 그 잘못된 발언을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고 있다. 통일부는 부총리 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시정해 주고 나서야 본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본다.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간혹 용어상의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다. 이 또한 발언상의 오류다. 듣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대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공적인 자리에는 더욱 그렇다. 일일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이를 시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통일부 장관은 굳이 이를 그 자리에서 시정해 주고 넘어가는 것일까. 단 한 번의 실수를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날 김영환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부터 대여섯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부총리'라고 불렀다. 결국 통일부 장관은 계속 '부총리'로 호칭되는 것이 썩스러웠던지 마지못해 이를 시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장내에서는 폭소가 터진다. 청중 모두가 계속적인 말실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런데 속기사들은 그런 정황과는 상관없이 '부총리'라고 할 때마다 이를 '장관'으로 고쳐 준다. 그러다가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부총리 부서가 아니라고 시정해 주기 직전 딱 한 번만 이를 말한 그대로 '부총리'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발언할 때의 태도에는 말하는 이의 인격이나 인품이 배어 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다. 자신의 지위를 단 한 번 부정확하게 표

현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해 주는 통일부 장관—너무나도 여유가 없는, 무척이나 예민한 사람이라고 독자들은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임시 회의록에서 ‘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본에서는 말한 그대로 ‘부총리’로 살려 놓았다.

팽팽한 기 싸움

9월 21일 방영된 SBS ‘세븐 데이즈’의 한 대목.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주제였다.

“지난 6월 당시 국회는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술렁이고 있었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유시민 의원의 증언이 이어진다.

“마포대교 건너오면 벌써 장관들이 기 죽지요, 와서 님일 생각을 하니까. 보통 ‘장관!’ ‘총리!’ 어찌고 하는데 장관이나 총리는 ‘김 의원님’ ‘이 의원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요. 참 어색한 거지요. 그런데 그날 강 장관이 대답하는데 첫 마디가 ‘김 의원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어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강금실 장관의 모습과 함께 음성이 나온다.

“그 이유는 아까 김 의원께서 당신의, 김 의원 당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이어지는 유시민 의원의 증언.

“기 싸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약간 미소 띤 얼굴로 답변 내용도 ‘지금 하신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딱 나오는데, 제가 고건 총리처럼 아주 많은 경륜이 있는 분도 아주 모욕적인 질문을 받거나 하면 약간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것을 보거든요. 강 장관은 그게 없어요.”

궁금하여 TV에 나왔던 강 장관의 답변 부분을 속기록에서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 대목을 보면서 글쓴이는 아차! 큰 실수를 했다는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쓴이로서는 정확성을 챙기노라고 인터넷 방송에까지 들어가 일일이 확인했던 부분이었던 것이다. 속기사가 나름대로 수문한 부분이었고,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과 강 장관의 기 싸움을 전제할 때 강 장관이 ‘당신의’라고 했다가 다시 이를 ‘김 의원 당신의’로 고쳐 말한 것은 분명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속기사는 고쳐 말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말한 부분만을 기록했다. 속기사 중에 당시에 김 의원과 강 장관 사이의 불꽃 튀는 기 싸움을 감지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유능한 토론자일수록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조용조용한 가운데 벌어지는 내면의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5~10분씩 잘라서 교대해야 하는 속기사로서는 이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장을 매끄럽게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차라리 말한 그대로 기록했다라면 기 싸움의 실상을 훨씬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질의? 응답자의 심리적 기 싸움이나 회의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읽을 수 없도록 다듬어진 속기록은 그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오류와 왜곡의 기록이라 할 것이다.

고민스러워도 말한 대로!

속기록을 작성하다 보면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첫째는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가 발언 내용상 적합지 않아 보일 때이고, 또 하나는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가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이거나 때로는 발언 내용상 국어사전의 설명과는 맞지 않을 때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저희는 특히 100년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 우리 주변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근대사를 살아왔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대조해 보니 위 예문의 밑줄 부분은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였다. 이상하다 싶어 원고를 찾아보았다. 속기사는 분명 ‘현

대사'로 기록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근대사'로 바뀌어 놓았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의원실의 수정 의뢰에 의해 '근대사'로 바꾼 것일까. 궁금하여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보았다. 의원별 홈페이지에는 모든 의정 활동 자료가 올라 있기 때문이다. 한데 거기에도 분명히 '현대사'로 되어 있었다.

'현대사'를 '근대사'로 바꾸어 놓은 것은 분명 '현대사'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발언자가 때로는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지식수준이나 이해력 부족 탓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의 지식수준이나 이해력 부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우리 나름의 판단에 의해 보다 적합한(?) 용어로 바꾸어 주어도 되는 것일까? 속기사가 발언 내용이나 용어(어휘)를 바꾸어 주는 것은 월권이다. 발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용어의 적절성 여부는 독자가 판단할 일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위 예문에서와 같이 엉뚱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부연하면, 학문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대원군의 등장부터 한일합방까지의 약 50년간을 말한다. 한일합방(1910년)부터 금년 2003년은 근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다.

저희가 지금 지상군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과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어서 전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현재 100만에 달하는 지상군을 전선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어서”—도대체 북한과 우리가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가? ‘연결’이란 단어가 영 어색하다. 실제로 발언자도 ‘연결’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육속’이라고 했다. 그런데 ‘육속(陸續)’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은 “끊이지 않고 계속함”이다. 이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위 예문에서 ‘육속’은 적합지 않은 단어이다. 아마 속기사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고민 끝에 ‘육속’을 ‘연결’로 바꾸어 준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자.

“월미도는 -(중략)- 육지에서 1km쯤 떨어져 있었으나 이미 1922년 육속됐고” -한국경제(2001. 9. 7.)-

‘육속’이란 말이 섬이 육지와 이어져서 섬으로서의 특성이 없어지고 육지화됨을 뜻하고 있다. 일반 국어사전에는 없는 쓰임새인 것이다. 그런데 위 발언자는 더 나아가서 ‘육속’이란 용어를 하나의 육지로 이어져 있다는 확대된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사회에서 쓰이는 어휘들 중에는 아직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다. 자신의 어휘력이나 국어사전에만 의존하여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를 바꾸어 주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이다.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는 무조건 발언자가 사용한 그대로 기록할 일이다. 적합지 않은 어휘를 사용했다고 고민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적합하고, 옳고에 대한 책임은 발언자의 몫이다. 우리가 진정 고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오청?오기의 가능성이다. 위 예문 중 “지상군을 전선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에서 ‘대비’는 ‘배비(配備)’의 오청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목표는 얼마입니까? **李 전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려다 무산된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에서는 3500억 원의 적자를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임 장관에 비해서 4000억 원을 추가 절감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3500억 원의 적자를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적자가 목표다? 그래서인지 속기록에는 이렇게 고쳐져 있었다.

“3500억 원을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적자’라는 용어를 아예 빼 버린 것이다. 속기사가 자신이 기록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발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 또 고민을 한다. 고민 끝에 손을 댈다. 그런데 그게 그만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뒤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원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7500억의 적자 상태였다. 이를 4000억을 절감하여 그 적자폭을 3500억으로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살려야 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를 바꾸거나 빼 버림으로써 뜻하지 않게 엉뚱한 오류가 초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일이다.

그런데 단지 어휘를 바꾸어 주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언자의 어투를 바꾸어 주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은 커다란 오류를 초래할 때가 있다.

어투의 물개성화

일문일답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행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원 한 사람이 질문하는 동안 속기사는 대체로 3명에서 많으면 7명까지 교체된다. 그런데 문제는 속기사가 바뀌면 발언자의 어투도 따라서 바뀐다는 사실이다. 발언자가 속기사를 골라 가면서 어투를 바꿀 리는 없는 법, 속기사의 스타일과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에겐 각자 특유의 어투가 있다. 그 특유의 어투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지역?계층?학력)과, 나아가서는 지식수준과 교양을 반영한다. 속기사들은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어투를 바꾸어 주기도 하고 빼 주거나 더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속기록에서는 동일인의 발언임에도 그 어투가 수시로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발언자는 동일한데 원고별로 어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자료를 보면서 각자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발언자의 어투를 그대로 살린 것은 O표를, 바꾸어 놓은 것은 X표 후 → 표 다음에 원래의 어투를 살려 놓았다.

< 함승희 의원 >

- 6번 원고

- ①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O)
- ②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O)

- 7번 원고

- ① 이제 평가는 충분히 되었지요?(O)
- ② 상황인식이 되었어요.(O)
- ③ 총리, 기억하지요?(O)
- ④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O)
- ⑤ 헌법 65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탄핵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O)
- ⑥ 그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지요?(O)

- 8번 원고

①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O)

- 9번 원고

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O)

② 위헌?위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그렇지요?(X) → 사과했어요, 그렇지요?(O)

③ ‘관용 처리’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X) → 있었어요.(O)

④ 경계인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X) → 했어요.(O)

⑤ 조선노동당 간부 당원으로 암약해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X) →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아요?(O)

⑥ 조선노동당을 탈당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X) → 이 말이에요.(O)

- 10번 원고

① 이런 반국가사범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X)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O)

② 간부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이 어떻게 불구속으로 처리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O)

- 11번 원고

① 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X) → 했어요.(O)

② 어떤 신문에서 폭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X) 수사상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X) 그랬더니 총장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X) → 없어요.(O) 물었어요.(O) 답변했어요.(O)

< 이완구 의원 >

- 39번 원고

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정치인들한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X) → 아니예요.(O)

② 정말로 천박스러운 용어입니다. 참 천박스러운 말이에요.(O)

③ 광복절 행사, 우리 두 곳에서 치렀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친북?반 북으로 나뉘어져서 치렀어요.(O)

④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 이념 가치관 상

황인식, 이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X) → 이야기예요.(O)

- 40번 원고

- ①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X) →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O)
- ② 19억 예산 중에서 한 푼이 없습니다. 내년도 11억 중에 약간 있을 뿐이에요.(O)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승희 의원의 종결어미 어투는 ‘~요.’를 특징으로 하면서 ‘~어요, 그렇지요?’ 식으로 확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6, 7, 8번 원고에서에서는 그 어투를 그대로 살려 주고 있다. 그러나 9번 원고부터는 갑자기 ‘~습니다.’의 문어체로 바뀐다. 그 특유의 어투를 기계적으로 ‘~습니다.’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완구 의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용어입니다. 말이에요’처럼 ‘~입니다.’와 ‘~예요.’가 반복되는 특유의 어투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역시도 ‘~요’라는 구어체의 어미를 기계적으로 ‘~입니다.’로 바꾸어 놓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사실 어투를 말한 그대로 살려 주다 보면 웬지 모르게 속기록이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문법을 웬만큼 안다는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지나치기를 못한다.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 싶은 욕심에서다. 그러나 이건 모든 발언자의 어투를 몰개성화시켜 버리는 짓이다. 어휘를 바꾸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속기사의 월권이다.

고건 국무총리의 어투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는 어투를 바꾸어 주고 누구는 그대로 살려 줌으로써 도대체 어느 것이 고건 총리의 어투인지 짐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 고건 국무총리 >

- ① 전 국무위원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언제든지 물러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O)
- ①’ 무슨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파병 원칙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라크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리라고 기대

하고 있습니다.(X) → 아닙니다마는, 그러나(O)

- ② 따라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하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정치개혁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O)
- ②' 이 정권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도덕성이고 하나는 개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X) → 기둥이 있다고 하면(O)
- ③ 그러나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사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KBS 사장의 인사에 대해서 총리로서 관여하는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O)
- ③'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면 법으로 다루어야(X) → 사안이라고 한다면(O)
- ④ 새로운 각오로 국정운영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O)
- ④'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X) → 받아야겠다고 하는(O)
- ⑤ 그렇게 해 본 뒤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면서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2단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O)
- ⑤'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X) → 나가야겠다, 이렇게(O)

‘아닙니다마는, 그러나’-이건 고건 국무총리 특유의 어투다. 여기에서 ‘그러나’를 기록하지 않았어도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고건 총리 특유의 어투는 사라져 버리게 된다. ‘있다고 하면’ ‘사안이라고 하면’ ‘받아야겠다고 하는’ ‘나가야겠다, 이렇게’-이건 고건 총리만의 어투가 아니라 구어체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투들이다. 문법적으로는 좀 어색하고 매끄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표현상 훨씬 훌륭하고 간결한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보다는 자칫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속기록상의 오류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문장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려는 욕심이 때로는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이종걸 의원 지난 8월 7일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세 가지 방식의 체제

보장을 언론을 통해서 제안했어요. 북한에 대한 불가침 의사를 행정부가 서면으로 보장하고,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행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겠다고는, 형식으로는 불가침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뿐 아니라 다자회담에 참가하는 지역 국가들 사이에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북한에 보장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미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참여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윤영관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의 관심 사항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파월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은 북한의 그런 안보 우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의 한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이 6자회담을 거쳐서 확정될지 어떨지는 아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상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미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제안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방안이 어느 정도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를 전제로 장관에게 질문을 한다. 이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그러나 실제 확인해 본 바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고, 이와 관련된 우리 참여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이고”—이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파월 장관의 대북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장관의 답변 역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이다. 파월 장관의 이야기는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이고, 우리는 협상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것. 속기사는 ‘이고’라는 연결어미를 ‘입니다’라는 종결어미로 어미 하나를 바꾸어 준 것뿐이다. 하지만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렸다. 아주 무식한 소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어투 하나까지도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됨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수문과 말한 대로 차이

속기록은 ‘말한 대로 기록’이어야 한다.

‘말한 대로 기록’이란 어떠한 기록을 말하는가.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와 어투를 속기사가 임의로 보태거나 빼지 않고, 또 변형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속기록에는 말실수는 말실수대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무식한 말은 무식한 말대로, 사투리는 사투리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잘못 발언한 단어나 숫자’ 역시 말한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발언 당사자의 정정 신청도 없는데 이를 속기사가 임의로 고치거나 바로잡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수문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동안 수문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오지 않았느냐고. 이견 속기인으로서서는 제기할 수 없는 우문이다.

수문이란 무엇인가? 음성언어를 문자언어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음성언어의 특성상 ‘문자화’로만 끝냈을 때 의미 전달이 부정확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문에는 구체적으로 ①문장 부호를 챙겨 주고, ②문법을 챙겨 주고, ③문체를 챙겨 주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어휘와 어투를 그대로 살려 주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다. 발언자의 말실수를 그대로 기록한 것은 속기록으로서의 생명이 있지만, 속기사가 이를 고쳐 놓음으로써 그 뜻이 변질되었다면 이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어휘와 어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면에서 속기록 작성 업무는 분명 기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장 부호를 제대로 챙기고, 문법을 제대로 챙기고, 문체를 제대로 챙기려면 속기사는 우리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랜 실무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언어 감각을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음성언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우리말 지식과 언어 감각이 하나로 어우러진 사람만이 음성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문자언어로 되살려 낼 수 있는 것이다.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초래되는 속기록상의 오류! 이것 또한 청취 능력 부족으로 초래되는 오청·오기 못지않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keeper@assembly.go.kr) (국회사무처 속기1과 편집담당)

Ⅲ.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 읽기

구술사료

권 미 현

대문도 없는 초라한 농가에 들어선다. 머뭇거리며, “저 아무도 안계세요?” 드르륵 낡은 미닫이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얼굴을 드러낸다. “누구여?” “저, 저희는요, ○○대학교 ○○학과에 다니는데요... 할머니께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응? 이야기? 내가 뭐 무식해 가지고, 얘기나 할 줄 아나? 춤지? 그러지 말고, 어여 들어와.” 할머니의 권유에 우린 방으로 들어섰다. 값나 보이는 물건도 보이지 않고, 그다지 따뜻하지도 않은 방, 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을 것을 권한다. 강의시간에 배운대로면 라포(rapport)를 먼저 형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엔 그 생각만 맴돈다. 여기저기 흠집투성이고, 썩은 곳이 더 많은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가져오신다. 손녀뻘 되는 아이들에게 혼자 사는 노인이 뭐 그리 대접하려고 하는지.....

녹음장비를 꺼내서, 할머니 앞에 놓는다.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이며, 목소리가 녹음되면 혹시 나쁜 일이 자신에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런 눈초리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쓰기 위해서 녹음하는 것이라고 할머니를 안심시킨다. 구술 수집 시에는 라포 형성이 가장 어렵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보다. 벌써 그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였다. 민속학을 공부하는 나는 주로 할머니가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민요), 들었던 이야기(민담) 등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민요와 민담을 듣자면,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게 먼저였다.

할머니의 살아온 얘기는 굴곡이 많다. 채 스물이 되기도 전에 얼굴도 본격 없는 이웃동네 남자에게 시집와서 부모공양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팔십이 넘었다. 그다지 정이 돈독하지 않은 남편과 머느리가 못마땅하기만 한 시어미의 시집살이 속에서도 자식 키우는 낙에 살았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도 함께 살지 못한다. 할머니 스스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닐 게다. 그게 우리네 부모의 얘기다.

그렇게 시집살이가 고될 때마다 부엌에 앉아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 이렇게 박 바가지를 얹어 놓고, 숟가락으로 두드리며 남편 욕도, 시어미 욕도, 신세타령도 쏟아 부었다. 요즘처럼 이혼이 웬 말이나, 바람이 웬 말이나...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노래라는 자연치유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나보다. 내가 들은 할머니의 인생 얘기는 누구나 아는 얘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역사책에서는 물론이고 어느 책에서든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할머니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럼 할머니의 역사는 어떻게 후대에게 전해져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역사는 지극히 가진 자와 중심에 선 자 위주로 기록된다. 인간의 경험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재현(representation)된다. 수많은 개인적인 기억들 중 몇몇은 사회적 기억이 되고, 사회적 기억들은 일정한 선택과정을 통해 역사적 기억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은 경험을 재현시키는 여러 형태 중 대개 문헌자료로 남게 된다. 사회적 기억들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 중심에 서 있는 자의 경험이다. 이렇게 선택되어 기록된 문헌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인간 경험의 총체적 재현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기억을 완전하게 남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사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최근 들어 구술사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남아있는 문헌자료의 부실함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헌자료로만 기술된 역사는 지방의 역사, 평범한 일반인의 역사,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담지 못한다. 아주 오래전의 경험은 구술사료로 담아내지 못하겠지만, 근현대의 경험에 대해 구술해 줄 구술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을 통해

수집된 구술사료는 역사를 풍부하게 기록하고, 사회적 기억을 완전하게 하는 데 그 몫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다.

구술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집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구술사료의 수집은 아무렇게나 해서 안 된다. 문헌자료의 수집처럼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어떤 유형(有形)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경험을 구술이라는 방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술을 하는 구술자와 그것을 이끌어내는 면담자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구술사료는 장점이 참으로도 많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읽게 해 주고,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게 해 준다.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사건과 사람을 우리 시대에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게 하고, 진실을 알게 한다. 보다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위 운동이라는 것을 한다. 완전한 역사를 이야기 하는 것,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 하는 것,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졸업/디지털기록정보센터)

공공기록관의 역할과 기록의 활용

조 영 삼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이하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자료관·특수자료관·전문관리기관 등의 기록물관리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법 시행일이 2000년 1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미진한 형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그동안 법령에 의해 유예되었던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이 시행되고, 분류기준표도 제정·고시됨으로써 기록행정이 구체화·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기록물관리기관 설립도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설립될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원리적 차원의 기록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회의적이다. 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기록보존소의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설립된 자료관들이 기록물관리법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가까스로 지키는 선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기록관 설립이 기존의 문서과에서 자료관으로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위상과 의의를 다시 점검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 문제제기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기록관리 정책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도대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은 간판을 다는 것 말고는 전략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2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단지 행정참고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부서의 설치가 아니다. 그것은 누누이 강조되었듯이 정보전달의 수단이 되고 역사문화를 전승하는 도구가 되는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 보자는 것이다.

기록물관리법에는 등록, 수집·이관, 분류, 기술(記述), 정리, 평가선별, 보존, 활용 등의 기록물관리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것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별되는 것을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하여 하나의 완결된 ‘기록(Archives)’으로 보존관리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완결되게 관리하자는 것은 결국 기록관리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훌륭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기록이 갖는 물리적 형태 그 자체가 갖는 ‘고유의 가치(Intrinsic Value)’를 위해 보존관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국 활용하기 위해 관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치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정부기록보존소의 자료관 설치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각 공공기관들은 자료관이 공간적 개념인지 직제상의 개념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는 서고, 자료실, 전산관리 등을 각기 다른 부서의 다른 공간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료관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아무 불편없이 문서를 관리해 왔으므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종래의 문서관리와 기록관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아직 기록행정에 대한 인식이 광범하게 공유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료관을 기획이나 총무부서에 설치하도록 한 법령 조항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조직을 구성하는 데 고려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보존을 혼동하거나 보존과 재난구호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전산화(Digitalizing)를 기록물관리기관의

모든 업무로 생각하는 것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보존은 기록물관리 전체에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보존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보존처리나 복원의 좁은 의미인 '보존(conservation)'과 보존환경의 구축과 유지라는 넓은 의미의 '보존(preservation)'으로 나뉘는 것인데 좁은 의미의 보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전자결재나 전자문서 유통과 같은 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자기록관의 전체적 차원에서 전산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자매체를 제작하는 전자파일을 만드는 일에 한정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사실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록의 전자적 관리'를 배제한 상태로 수행되고 그것이 전문가 없는 기록관리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비약되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행정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요구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록행정의 체계화가 절실히 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욕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은 기존의 문서관리라는 업무에 한정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록물이 지속적인 유용성과 가치를 갖는 한, 접근하기 쉽고, 알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보존한다. △기록물의 정보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형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록관리의 본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강조는 필자)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전략을 설정하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역사·문화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기록관
- ◆ 전자기록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록관
- ◆ 공개·활용 등 대국민적 창구가 되는 기록관

먼저 역사·문화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기록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적 욕구가 분출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원래 기록관의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행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기록관리가 부실해서

일단 공공기관의 행정기록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자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록문화의 선진국인 외국의 경우에는 기록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 기록관의 경우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린 기록물을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해당 지방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 자료관의 경우도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고 중앙행정기관도 기능과 업무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하는 역사관이나 박물관을 기록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기록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록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전자정부의 추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전자기록물의 관리는 전자정부의 일부분이다. 주로 전자결재, 전자문서의 유통 그리고 전자기록의 보존이 기록물관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내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결재, 자료관시스템, 전문기록물관리기관시스템, 행정기관 간 유통시스템 등이 연동하는 하나의 체계로 운용될 것이다.

이렇듯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기록물관리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시스템이 연동하여 운용된다고 하지만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특히 전자기록의 보존에 대해 표준화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운용과 전자기록물관리가 따로 추진되거나 아예 전자기록물의 관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기반 없이 전자정부 추진에 밀려 일방적으로 전자문서 중심의 기록행정으로 전환하는 상황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제라도 가능한 선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관리 및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의 중심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자문서가 기록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기록물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개·활용 등 대국민적 창구 역할을 하는 기록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록물관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기록물관리의 방법론이 꾸준히 개발되고 발전된 것은 이를 위해서였다. 기록물 출처의 원리와 원질서의 존중 등 기록학 원리론이 자리를 잡은 것과 국제적인 기록물 기술(記述)요소의 개발과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그 사례이다.

그런데 기록물의 활용이 단지 대국민적인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기록물의 관리는 행정참고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어찌하면 기관 내 업무참고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업무를 위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3

기록은 현용기록, 준현용기록, 비활용 영구보존기록이라는 세 단계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갖는데 현용기록은 기록의 생산단계에서, 준현용기록은 생산이 완료된 후 행정적인 활용단계에서, 영구보존기록은 행정적 활용이 완료되어 폐기되지 않고 역사적 혹은 정보적 가치부여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민원적 차원의 대외적 열람과 활용은 준활용단계의 기록이나 영구보존기록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어떤 사안이 완결된 후에야 정보공개 대상이 된 것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안이 종결되지 않은 현용단계에서도 대외적 열람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마다 열람과 활용이 다르게 적용되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최근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행정정보 공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 네 가지의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 적시한 정보-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청구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관리도 정보공개의 이런 패턴에 적응해야 한다.

최근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에는 또 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자정부 웹사이트나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부터 이의신청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전산시스템 하나를 개발해서 운용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일단 정보목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문서의 제목을 링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기술(記述)항목이 충실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기관 내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참고에 용이하도록 기록물관리를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후에는 행정참고의 요구는 거의 없지만 기록의 관리가 생산부터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단일한 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준활용·비활용이 분절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차후에 업무참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관리 차원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업무담당자가 기안을 하려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자신이나 선임자가 어떻게 기록을 생산했는지 다른 공공기관이나 연구단체에서는 기안할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지식정보가 있는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전산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내 업무담당자에게 충분한 행정참고가 되도록 하고 대국민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의 전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록물관리기관과 종사자들은 단지 기록이 행정처리를 위해 유통되는 것을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4

지금까지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공공 기록물관리기관이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 역사·문화적 측면, 전자기록

관리의 측면 그리고 활용의 측면 등의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사실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 당장 이런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 기관의 특성상 반드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조직과 예산운용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역사·문화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단 기존의 박물관이나 문화관 등이 있다면 조직과 기능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기본적인 재료(컨텐츠)가 부족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 기관의 특성상 이런 역할이나 공간 마련이 불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전자기록관리와 전자문서 운용체계의 연동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전산담당 부서와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기록행정과 전산관리가 쉽게 융화되기 어려운 여러 조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국민을 위한 기록의 활용은 바로 시행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여서 조직과 예산상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법률적인 뒷받침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준비 없이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된 업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장비를 갖추며 기록정보의 기술(記述)을 충실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또 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공개법의 전면개정으로 공공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록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기록보존소)

제11회 속기학술세미나

이 봉 선

아침 6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려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인다. 기상캐스터의 낭랑한 목소리,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란다. 네 살짜리 우리 아들 어린이집 가는 복장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서긴 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시리기만 하다. 다행히 곳은 날씨가 아님을 감사해야 하나……

게다가 그간 폭 쉬던 국회 예결위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 왜 하필 지금 정신을 차린단? - 휴일도 없이 오늘부터 무진장 열심히 회의를 한다. 세미나를 가는 사람이나 남아서 천금같은 주말과 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나 스트레스 100% 충전이다.

오래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되면 정리해야 할 것도, 챙겨야 할 일도 많아 마음이 산란해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협회의 예산사정으로 한겨울이 되어서야 세미나를 치르게 되어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던가. 야밤의 날치기 때도, 의사봉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순간에도, 속기사 없이 시작한 회의에서도 회의록은 여지없이 나오지 않았던가. 눈앞에 닥친 갖가지 악조건들을 거뜰히 물리치고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를 위해 선발대가 출발하고 나면 각 팀은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하고 지원팀에서 준비한 물품들이 버스에 실리면 일단 출발 준비는 끝. 12시 30분. 이동팀의 인원체크가 시작되자 역시 일등은 우리의 육파회 선생님들이시다. 그 뒤를 국회 회원들, 새롭게 협회에 가입한 법원 속기사 회원들, 서울 근교 지방의회 회원들이 이었다.

부릉부릉 시동 걸린 버스 안에서 하나 둘 셋~ 숫자를 헤아리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동을 친다. 파주시의회의 이진희 회원이다. 갑작스레 열린 회의가 그제서야 끝이 났단다. 국회보다 더 열심인 의회가 또 있었던 모양이다. 파주에서 바로 날아와도 1시 반이 넘어야 도착한다는데 안타까웠

지만 더 이상의 지체는 불가능했다. “할 수 없죠” 하며 끊는 이진희 회원의 목소리가 서울을 떠나 단양에 당도할 때까지 내 맘을 불편하게 했다. 고속도로 중간에서의 사고 여파로 우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담삼봉으로 유명한 단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숙소에 짐을 풀기가 무섭게 세미나장으로 향했지만 계절이 계절인지라 주제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 날은 벌써 저물고……

첫 번째 주제는 경희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김민전 교수의 ‘한국 정치제도 연구’.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 지난 대선의 불법 정치자금에 정치판 최고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치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치제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였다. 속기사라는 직업 덕분에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무관심했던 정치제도, 시간이 부족한 탓에 서둘러 강의를 마무리해야 했던 점이 못내 아쉽다.

이어서 진행된 국회사무처 김종두 법제실장님의 ‘자치입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과연 이 시대에 법 없이도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한 해에만도 수 없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법률들, 어렵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나 실생활과 밀접한 법, 그러나 역시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법. 강의 후 질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명강의였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잠깐, 이게 웬일인가? 우리의 파주시의회 열성 회원들이 기차를 타고 그 먼 길을 달려와 준 게 아닌가. 정말, 대단해요~. 파주시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된다.

다시 세미나로 돌아와, 마지막 주제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준원 교수님의 ‘사법부의 속기현황 및 전망’. 사법부에 재판사무를 위한 속기제도가 도입된 최초부터 현재까지 인력구조의 변화와 속기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법원의 구현이 시도되는 시점에서 속기제도의 변화 가능성 및 전망까지 고찰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번에 협회의 새로운 식구가 된 법원속기사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강의를 준비해 주신 세 분 강사님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주제발표를 모두 마치고 저녁식사 후 이어진 순서는 학술(?) 세미나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여흥시간. 수년간 사랑받아 온 곱사춤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사업부장님의 현란한 댄스와 노래를 시작으로 각 팀 대표선수들의 열창과 백댄서들의 율동, 사이사이 댄스타임의 몸부림, 육

파회 노장 선배님의 멋드러진 100% 썸 라이브까지 - 가요계 미발표곡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음 - 우리들의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각자 속소로 돌아와서도 일부 회원들은 서로의 잔에 추억을 부어가며 평소 못 다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다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부지런한 회원들은 일찌감치 대성산에 올랐다. 자연의 맑은 공기 때문인지 간밤의 술기운도 다 깨어나고 산을 오르는 회원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어느덧 세미나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 기념촬영이 빠지면 안 되겠지요? 눈부신 햇살 때문에 인상을 좀 구기기는 했지만 모두들 하하호호 즐겁기만 했다.

돌아오는 길, 답사팀이 찾아낸 장다리식당에서의 점심식사는 모두의 뱃속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후일 단양에 들르게 된다면 장다리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심이 좋을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11회 속기학술세미나,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은 남는 법. 다음 세미나를 기약하며 지방의회 회원들을 실어 보내고 우리도 서둘러 버스에 몸을 실었다.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 각자의 가슴 속에는 뿌듯함을 가득 안고 돌아갔으리라 믿는다. 추운 날씨 속에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피곤은 했겠지만 가끔씩 단양의 겨울을 생각하며 씩~ 웃을 수 있길 바란다.

(홍보부 기자)

제11회 속기학술세미나 결과보고

1. 일 시 : 2003. 12. 20 ~ 12. 21
2. 장 소 : 단양대명콘도(충청북도 단양읍 상진리 소재)
3. 참가인원 : 국회 48명/ 지방의회 37명/ 법원 27명/ 기타 18명/
총 130명
4.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 1) 한국 정치제도 연구(제도, 행위 그리고 정치사)
- 김민전(경희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 2) 자치입법의 의미와 기본원리 - 김종두(국회사무처 법제실장)
 - 3) 사법부의 속기 현황 및 전망 - 정준원(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그 언제적 나는

이 정 구

처음 본

詩人 박남희씨가 대뜸 나에게 그러대

목숨걸었냐구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때 내 머리속에는

‘지뢰찾기’ 와 ‘두더지잡기’ 가 번갈아 떠오르고 있었거든

문득 뒤돌아보니 돌아나갈 퇴로가 없는 거야

부러 그렇게 몰아온 건 아닌데 나에게 남은 마지막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거야

‘지뢰찾기’ 를 하는 건지 ‘두더지잡기’ 를 하는 건지

가슴 가득 지뢰를 담고 여기 불쑥 저기 불쑥 머리를 내밀다가

하나 둘 나의 머리 여기저기에서 터지는데, 청신을 못차리겠어

하얀 머리속으로 보글보글 수증기들이 솟아오르는 듯도 한데

청신 차릴 것이 무언지 알아먹질 못하겠어

그 무엇이 나를 그토록 속죄이는지 알아차리질 못하겠어

청신을 못차리겠어, 도저히

드디어 대폭발이 일어나려나?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숨 걸었냐구?

그 순간 커다란 폭음으로 나 자신이 산산조각나대

그래서 날아올랐는데 어디쯤 갔으려나 몰라

바람에 나부껴 북한산 인수봉도 기웃거리려고

글로리아 나이트클럽 플로어에서 훌쩍 부풀어 올랐다가

지금, 어디쯤 내려 앉았으려나 몰라

양수리 지나 눈발 섞어드는 북한강 저 어름쫘
야마, 야마
거기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

이 마트 앞을 달려가던 모범택시의 불빛에 실려
밤거리 걷는 여자들의 발길을 내려다보며
난 힐끔은 거렸겠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출구와 입구를 헤매며
나에게 들어온 인풋과 아웃풋의 간격을
새삼 되새김질하며
이젠 뱉어내야 할 나의 모든 것들을 새삼
아까워하겠지,
그리고 안타까워하겠지
목숨을 걸어본,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로 재촉받은
그래서 목숨을 걸어본,
걸어본

그래,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물음들이지
사랑해 보셨나요?
인생을 즐기셨나요?
목숨을 걸었나요?
그 어디에

내가,
언제쯤 내가 그랬었나
몰라,
언제쯤 내가 그랬었었던가

(전 국회속기사, 현 고양문협 회원)

파주시의회

최 미 영

파주시의회는 1956년 2월 13일, 같은 해 7월 8일 2·3차에 걸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1956년 8월 8일 제2대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파주군(현 파주시) 최초로 128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고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서 128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어 6년여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그 후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3월 26일 역사적인 제1대 군의회 의원선거의 실시로 12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1년 4월 15일 초대 파주군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만 구성된 지방자치제도가 30여년 만에 부활되었다.

1994년 7월 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안전심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무보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6년 3월 1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도·농 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제2대 파주군의의회가 초대 파주시의회로 재구성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2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하여 13개 읍·면·동에서 1명씩 1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8년 7월 7일 제2대 파주시의회가 개원되었으며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구 3만 이상의 교하읍과 조리읍의 의원이 각각 1인씩 상향 조정되었고 2002년 6월 13일 제3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하여 13개 읍·면·동에서 1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02년 7월 2일 제3대 파주시의회 개원식을 갖고 제3대 의회가 활동 중이다.

현재 파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조직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3명, 의사계와 의정계의 각 담당들이 있고 14명의 직원들이 있다. 그 중 속기사는 3명인데 이 3명(최미영, 이진희, 신현미)의 속기사가 각각 본회의와 예결특위, 총무보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개원 이래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 안건심사와 감사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 외에도 각종 연수와 세미나 참석, 전산교육 등을 통해 의원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왔고 타 시·군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와 일본, 대만, 중국 등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친선을 도모하여 왔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보다 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수해 관련 건의안, 구제역사태 관련 건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촉구 건의안과 의정부교도소 파주이전 철회 촉구 결의문, 미군범죄 재판권 이양을 위한 SOFA 재개정 촉구 결의문 및 오천원권 화폐도안의 자운서원 교체를 위한 건의문 채택 등 파주시민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다.

☒ 파 주 시 소 개 ☒

파주시는 역사적으로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 63년 처음으로 술이홀현(述爾忽縣)이라 불리워졌으며 1895년 조선 고종 32년 파주군(坡州郡)으로 되었고 1996년 3월 1일 파주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파주시)로 승격(3읍 11면 2동)되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북교통의 요충지로서 경기도 서북부의 서울과 개성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동으로는 양주군, 남으로는 고양시, 서쪽에는 김포시가 있으며 북으로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북동쪽으로부터 흐르는 임진강은 파주시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흘러내리는 한강과 합류하여 황해로 흐르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에는 감악산,

파평산, 앵무봉과 같이 산자수명한 명산이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에는 낮은 구릉지대와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농경에 적합한 지역이다. 서울에서 판문점을 연결하는 통일로 국도 1호선과 행주대교에서 임진각까지 연결된 자유로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달리던 경의선 열차와 함께 남북교류의 주요 교통로로서 시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 파주는 유서 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서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우리 시에는 용미리 석불입상, 윤관 장군 묘 등의 국가 지정 문화재와 화석정, 황희 선생 영당지와 이이 선생 묘 등의 도 지정 문화재는 물론 수많은 향토유적이 소재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유적의 보존과 함께 새로운 문화유적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며 경세가인 대현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기 위한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율곡 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는 유가행렬 재연이 펼쳐지고 자운서원에서는 선생의 추향제례가 봉행되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전시행사 등을 마련하여 율곡 선생의 덕을 기리고 있다. 이외에도 파주에서는 매년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전통 민속놀이 공연과 파주예술제를 비롯한 미술전시회, 음악제, 청소년 예술축제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과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교통 및 경제·사회적 여건 아래 최근에는 21세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서 경제·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교하지구 신도시 개발, 금촌지구 택지개발과 대학 유치 및 LG필립스 LCD공장 유치 등 급격한 개발의 수요로 명실상부한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외 연수기

고 경 효

1. 들어가며

해외연수기를 쓰면서 진급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로맨스소설 읽기로 나날을 보내던 나에게 뜻하지 않게 다가온 기회는 그렇게 나를 시험공부에 밀어 넣었고 그 결과 이런 해외연수기를 쓸 수 있는 행운까지도 주어졌으니 앞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 연장선상에서 벌써 작년의 일이 되어 버린 지난 4월 설렘 속에서 받았던 4주의 신입관리자교육과 2주의 해외연수를 갈 때까지의 우여곡절-사스, 장소의 변경, 비행기 스케줄, 가고 싶었던 곳 등- 끝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의 즐거운 단상으로 떠오른다.

2. 서유럽의 길목으로 - 프랑스

17명의 동기들과 남석훈 과장님만으로 이루어진 서유럽 교육훈련팀은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현지에서 로컬가이드만 붙는 조건으로 프랑스 파리로 출발했다. 용감하기도 하지, 노인들도 아닌데 왜 가이드가 따라가냐고 했던 우리들의 오만 덕에 나라가 바뀔 때마다, 도시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현지가이드와의 미팅이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과 스틸도 맞보아야 했다. 어쨌든 우리 일행은 파리 CDG, 샤를 드골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를 만났고 우리의 유럽 L.D.C(Long Distance Coach)여행은 시작되었다.

빛의 도시 파리에서의 첫날은 프랑스의 신도시인 라데팡스 지역에 위치한 호텔 옆 커피집에서의 카푸치노 한 잔과 파리 시내 건물의 우아함, 고전적 거리, 높지 않은 건물들에 놀라며 프랑스에 왔다는, 유럽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기대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여행은 물론 에펠탑 관광부터였다. 에펠탑 전망대에서 바라본 파리는 센강을 중심으로 숲과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 살고 있는 아름답고 멋진 도시였다. 에펠탑은 에펠이 1889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웠다는데 오늘날 파리를 대표하는 명물로, 파리 시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멋진 곳으로 변해 관광객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야만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침 일찍 가이드의 재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줄을 선 다음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었다.

파리의 명소 콩코드 광장, 노트담 사원도 구경하고 개선문도 보고 몽마르뜨 언덕의 예술인 거리도 참 좋았다. 오후에는 17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힘들어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몇 사람이 파리 지하철은 꼭 한번 타 봐야 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몽마르뜨 언덕에서 내려와 지하철을 타고 샹젤리제 거리로 직행! 빛의 도시 파리는 밤에 그 진수를 보여주는데 샹젤리제 거리는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해져서 유명 브랜드 가게들과 영화에 나온 유명 카페들은 우리같은 이방인의 시선을 끌었고 샹젤리제 거리 카페에서의 시원한 음료 한 잔은 우리로 하여금 파리의 밤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

라데팡스호텔로 돌아오기 위한 지하철 탑승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럿이라는 무모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난다.

파리 3일째는 루브르미술관과 베르사이유 궁전 구경하기.

장소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L.D.C 전용차량이었는데 18명 우리 팀만으로 구성되어 한결 여유 있게 다녔다.

루브르미술관은 8개 부문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간관계상 회화와 조각들만 구경했다. 수많은 조각과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등 볼거리가 정말 많았는데 다 보지 못하고 이루 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이집트관을 못가 본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음을 위해(?) 남겨 놓는다는 생각으로 돌아섰다. 루브르미술관 광장에 세워진 폐이의 유리로 된 피라미드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

베르사유궁전은 최초에는 사냥 시의 별장으로 지어졌으나 태양왕 루이 14세에 의해 무려 50년간의 대역사 끝에 현재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과 정원으로 만들어졌다. 무도회장으로 이용되었던 거울의 방이나 마리 앙드와네트 왕비가 사용하던 왕비의 침실 등 궁전의 호화로움과 사치는

또한 영원히 역사에서 부르봉왕조를 퇴장시키는 아이러니를 낳기도 했다. 베르사유궁의 정원은 기하학적인 모양의 화단과 아름다운 분수의 조화로 정원꾸미기에서 불란서식 정원의 전형이다. 꾸미고 다듬은 미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바로 베르사유궁의 정원이 최고인 것 같다.

3. L.D.C의 진수 - 브뤼셀, 쾰른, 로렐라이,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장거리 버스전용투어의 장점은 버스안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구경하다가도 가이드가 ‘다음은 로렐라이입니다, 내려서 구경하세요’ 하면 내려서 보고, 그러다가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유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을 보면서 다음 장소로 쉽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유럽의 지형상 서유럽투어는 그런 면에서 참 아기자기한 것 같다. 어디를 가도 옆서에 내놓을 만한 건물과 풍경들을 볼 수 있다. 프랑스와 스위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그 길 위의 도시들은 그런 면에서 관광수입의 이점을 얻고 있다. 장거리 버스여행의 한 도시인 브뤼셀에서 우리 일행은 학자풍의 가이드를 만나 만나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맛있는 초콜릿도 사서 담고 수예품도 구경하고 광장에서 사진도 찍고..... 서유럽의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브뤼셀 광장은 작고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돌광장이었다.

독일의 여러 도시들은 도시마다의 특색을 지니고 있어서 지나가는 관광객의 마음을 끄는데 강을 따라 연결된 로렐라이 언덕길은 정말 아름다웠고 길옆의 고성들은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와서 보고 싶은 곳이었다. 대성당으로 유명한 쾰른을 거쳐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가이드의 도움을 얻어 우리나라로 치면 이태원 같은 곳을 찾았다. 독일의 생맥주, 소시지 맛을 즐기려고 그곳에 갔는데 웬 황제! 마침 무슨 축제기간이어서 작은 카페에서 라이브 무대가 열리고 있었다. 음악은 세계의 공통 언어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원한 맥주와 생음악에 취해 버렸던 그때의 즐거움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가 없다.

하이델베르크는 중세 유럽 고성의 분위기를 풍기며 낯선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성 밑을 흐르는 네카 강과 철학자의 길은 정말 멋진 분위기를 풍겼다. 10월 축제 때면 마르크트 광장에서 맥주와 온갖 소시지 꼬치, 베이컨 등을 지글지글 구우면서 판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광장에 노래무대만 가설되어 있었다.

독일은 소시지와 샤우어라고 찢찌름하게 간한 채킨 양배추를 많이 먹는데 이번 연수훈련에서는 먹어보지 못해 무척 아쉬웠다. 음식애기를 조금 더 하자면 유럽 여행 중 하루 한 끼는 한식으로 식사를 해서 별 고생은 없었지만 이태리 스파게티 외에는 전통적인 유럽 음식-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면-을 맛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나오서는 썩 유감이었다.

4. 다시 가고 싶은 융푸라우 - 루째른,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루째른에 들어서면서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와 청량한 냄새는 우리로 하여금 그림 속의 나라 스위스에 들어선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호수 사이라는 뜻의 인터라켄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융푸라우를 올라갈 때는 기분이 최고였다.

정상에서의 만년설 속에서, 얼음궁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있었다. 융푸라우가 보여 준 정상의 자태를 만끽하며 자연의 위대함, 순결함, 만년설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 버렸다. 우리 일행은 융푸라우가 보여 준 감동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침묵하면서 아쉽지만 그린델발트로 내려오는 산악열차에 몸을 실었다.

인터라켄에서의 이른 아침 산책은 융푸라우의 또 다른 위용을 보여 준 참 멋진 장관이었다. 아침 여명의 구름 속 하얀 봉우리는 깎아지른 듯하여 절대 사람들의 등정을 허용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곳을 정복하여 그 정상에 얼음궁전을 만들고 열차를 운행하다니..... 사람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용기의 표상이 바로 융푸라우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스위스는 아직 유로에 가입하지 않아 국경통과에 문제가 좀 있었고 스위스 프랑화를 쓰고 있어 여행객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굿(good)! 시내구경을 하면서 사먹은 과일 맛이 다시 생각한다. 인터라켄 호텔의 옥실 타일조차도 전체가 다 코발트블루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5. 이태리 - 도시국가와 고대의 영혼들

장거리 버스를 타고 스위스를 넘어 이태리 땅으로 들어서는 순간 왜 같은 땅에 연이어 있는데도 그렇게 나라의 특색이 다를까, 왜 국경이 정해지는 것일까 의심이 들었다. 흙 색깔부터 다르고, 집도 다르고, 지평선도 다르

고, 사람들 성격도 다르다. 이태리 사람들은 조금 더 소박하다.

이태리는 북부의 발전된 공업도시들과 로마, 남부의 농업중심 도시들로 특색을 이루지만 지형과 산물에 따라 달리 발달되어 온 도시의 형태들이 아직도 그 흔적을 생생히 남기고 있다. 어쨌든 북부의 밀라노나 제노바, 물의 도시 베니스는 자치적인 중세 도시국가의 모습으로 현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매력을 뽐어내고 있다. 소박하지만 견고하고 우람한 성과 종탑, 광장, 아름다운 건물, 금방이라도 중세의 기사들이 나올 것 같은 거리에서 피자를 굽고,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먼 동양의 관광객에게는 멋진 풍경이었다.

로마를 생각하면 처음 로마를 봤을 때의 놀라움이 떠오른다. 로마라는 도시를 보면 고대, 중세, 현대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 자동차가 고대 로마의 성벽 밑으로 다니고 있고, 허물어진 성터 옆에 중세의 건물이 서 있고, 또 그 옆에는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조각상과 분수가 지천이고..... 우리의 서울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경이를 느끼는 것이 소박한 나만의 놀라움이었는지 모르지만 로마는 아직도 그러한 도시이다.

로마의 바티칸시티 박물관과 성베드로 대성당은 인간의 의식이 미칠 수 있는 장엄함의 극치이며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 벽화는 유럽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진수라고 생각되었다. 장엄과 신께 드리는 공양과 공손의 의미, 모든 면에서 그렇다. 콜로세움과 대전차경기장 등은 로마를 로마답게 하는 전형적인 유물로 고대의 영혼들이 현대의 영혼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손짓하여 부르는 장소이다.

장거리 버스를 타고 이태리 남부의 폼페이를 가는 길은 화창했다.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정도의 기온이었고 비슷한 풍경들 - 낮은 산, 4차선 도로, 간간이 눈에 띄는 허름한 집- 속에서 L.D.C 이태리인 기사의 비위를 맞추어 주며 가는 여정으로, 어디를 가나 얼굴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탐색과 코드 맞추기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가는 여정이었다.

고대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거대한 화산재가 덮기까지는 로마의 휴양지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3m 이상의 화산재로 쌓인 채 오랫동안 잊혀졌던 폼페이는 18세기에 발굴이 시작되어 화석으로 변해 남아 있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고대 로마의 호화로움, 도시의 모습을 완벽

하게 보여 주며 오늘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아직 유적발굴이 진행 중이며 5분의 3 정도가 드러났는데 화산재를 피하려고 구부린 상태 속에서 미라가 된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슬픈 모습이었다. 그밖에 고대 로마의 공동 샘과 방앗간, 하수구, 도로 포장, 부잣집의 풀장까지 오늘날과 다름없는 도시가 2000년 전 베수비오 화산을 등지고 존재하였다는 놀라움은 여러 형태로 발굴된 생물들 존재만큼이나 경이롭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유명한 소렌토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의 집들과 도로, 올리브나무가 계단식 밭으로 연이어져 있어 인상적인 곳이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곳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관광자원이 되는 곳이라고 여겨졌다.

아름다운 카프리! 남부의 소박하고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초라함에서 갑자기 벗어나 귀족적인 자연미로 사람을 압도하고 건물, 에메랄드빛 바다, 코발트블루의 정말 새파란 하늘이 함께 어우러지고, 깎아지른 산 옆의 길을 완전한 S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카프리 섬에 꼭 가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6. 마치며

신입관리자교육에 왜 2주간의 해외연수 과정을 넣었을까, 1979년 국회에 입사한 나는 1988년부터 부활된 국정감사로 인해 유럽과 스웨덴, 러시아 등의 해외국감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하지만 교육의 일환으로 이번 서유럽 연수를 통해 갖게 된 유럽에 대한 느낌은 해외국감을 통해 다녔을 때의 느낌과 사뭇 달랐다. 출장 형식으로 유럽 여러 곳을 다녔을 때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 그저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각도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서유럽 연수는 내가 사는 곳이 경제적, 역사적, 지형학적으로 어디쯤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해 준, 한마디로 내 인식의 시야를 확실하게 넓혀 준 효과적인 것이었음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 싶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3담당)

조직인으로 사는 길

김 종 두

I

사회(社會)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이다. 각 인간은 상호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면,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 공동체 내에서 다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게 된다.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속에 나름대로의 작은 조직에 소속되어 일생을 지내게 된다. 물론 여기서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은 혈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혈연과 같은 1차적 요소가 배제된 조직을 말한다.

회사(會社), 이를 다시 음미하여 살펴 보면, 앞서 살펴 본 사회(社會)와 글자의 배열만 다를 뿐 글자 자체는 같다는 사실이 꽤 의미 있다. 가족과 같은 혈연 공동체를 제외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사회를 싫다고 흔히들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회사와 같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거미줄과 같은 조직이 우리의 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조직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아 보고 이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급의 조직이론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옛날에도 오늘날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나름대로의 수요에 의하여 이른바 처세술이 있어온 것이다.

조직생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이를 잘 헤쳐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삶이요, 경제적인 것이다. 나름대로 살아온

진리와 교훈이 개인마다 있겠지만 필자가 몸으로 느낀 사실을 조직원리의 일반원칙에 대입하여 이를 나누어 서술해 보기로 한다.

II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조직은 유기체(有機體)라는 사실이다. 이는 조직이 생명력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자체는 의견상으로는 매우 다양한 외양을 띠게 된다. 만약 구성원이 보수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다면 자연히 현상유지적인 모습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반면에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모인 조직이라면 현실을 탈피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은 그 구성원이 조직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조직의 구성원은 각 구성원의 지위가 서로 같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조직에 들어온 시기가 늦고 빠름에 따라 선배와 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 따라 지도자 내지 간부를 두고 있다. 간부(지도자를 포함한다)는 단순한 조직의 구성원에 비하여 권한 및 의무를 훨씬 많이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간부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는 조직 자체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직의 간부가 취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그 리더십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몇 년 전까지 유행한 모델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똑똑함과 이에 대비되는 멍청함이 그 기준의 하나이고, 부지런함과 이에 대비되는 게으름이 또 다른 기준이다. 이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다.

똑부형, 똑계형, 멍부형 및 멍계형이 그것이다. 그 중 구성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멍부형(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유형)이고,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똑계형(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유형)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똑계형을 선호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간부 중 그만큼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부는 똑똑한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게으른 형은 드물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간

부의 위치에 이른다는 것은 조직의 계층제 구조(hierarchy)를 감안하면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이를 성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면성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다.

근면성 외에도 간부의 특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속성은 성격이 급하다는 점이다. 지난 시절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실이 흔히 결재 과정에서 부하직원 앞에서 결재서류 내지 서류판을 내동댕이친 상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보면 결재의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내용 그 자체보다는 적시성(適時性) 있게 결재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일 수 있다. 여하튼 같은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일을 해낸 것이 훌륭한 업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급하게 일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량을 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조직의 구성원은 자기의 상사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나 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 뒤 그 처리 경위와 내용 및 결과를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흔히 자기가 중국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실만을 지나치게 믿고 있거나 아니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소극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업무가 잘 처리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지 사소한 사항에 불과한 일을 일일이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다. “보고”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서 조직구성원은 필수적 내지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겠다. 물론 대면(對面)보고인지, 비대면(非對面)보고 인지 아니면, 종합보고의 한 요소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보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인 것이다. 더 나아가, 좀 더 직설적으로 이해한다면 “보고”는윗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처리방안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사전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업무를 처리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그 업무처리에 대하여 판단을 미리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관련 정보는윗사람이 훨씬 깊고 다양하게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윗사람에게 이를 맡겨보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책임회피성이라든가 업무태만형으로 행위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며 적시성을 놓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외에 취미·동호인 활동 등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조직원리에서 보면 비공식활동의 순기능은 공식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윤회유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하려면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비공식활동은 공식활동의 효과를 배가(倍加)시키는 것으로 행사되어야지 공식활동은 없이 비공식활동으로 조직의 효과를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IV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으로 처신하는 데 필요한 금과옥조(金科玉條)는 먼저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되면 자기(잘난)탓, 못 되면 조상탓”이라는 옛말의 의미를 잘 고찰하여야 한다. 일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조직구성원 간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행태를 보인다면 그 조직은 예견된 응분의 결과를 받은 것이다. 남에게서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수습책에 신경을 쓸 일이지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물론 사태수습 후 적정한 시기에 응분의 문책은 있어야 한다.

한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상사 또는 심지어 부하 직원에게서도 업무 또는 업무 외에 속하는 사항까지 경청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모습이 훌륭한 조직인이라고 하겠다. “세 살 배기에 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선인(先人)의 경언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감안해 보면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루기 힘든 확률의 게임속에서 일어난 것인가, 그만큼 같이 있게 된 인연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같이 근무한 인연에 따라 운명이 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다. 얼핏 생각해 보아도 손斗煥 전 대통령 시절의 제1사단 근무 인연, 盧泰愚 대통령 시절의 제9사단 근무 인연, 심지어는 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 운명을 같이한 그 비서실장 등......

우리 사회에서는 인연을 생각하면 혈연·학연 또는 지연만을 꼽고 있는데 근무를 같이한 인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연이 반드시 자기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상대에게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시 생각해 보자. 우스운 일이지만 근무를 같이한 인연 때문에 승진·전보 등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바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나 사례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면이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만큼 오늘 하루하루,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조직 내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제시해 본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제112화) 말을 짚는 사진사 '國會速記士'

이 글은 2003년 1월 26일(오전 7:11-8:00)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임. (윤진이 문선희)

♠ - 나레이터 설명

()안은 김진기 선생님 증언

- 자, 여러분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장선거를 하는 회의니만큼 지금부터 선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임시로 사회를 보실 분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 그것은 너무 번잡하니까 사무총장이 그냥 투표용지를 돌리면 좋겠습니다.
- 그건 안 됩니다. 사무총장은 그냥 회의를 개최하면 책임이 끝난 거요, 후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임시사회를 볼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맞아요' '옳소')
-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사회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김규식 박사를 임시사회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좋습니다. (일 동 박 수)

♠ 단기 4279년, 서기로는 194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막을 올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1차 회의 장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

의 입법자문기구로 출범했던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기관은 1948년에 문을 연 제헌국회가 되겠지만 과도입법위원의 이날 회의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회의로 기록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규식 박사는 총 53표 중에서 4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열렸던 그 과도입법위원의 제1차 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57년이나 지나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헐리고 없는 옛 조선총독부 자리에 들어 있던 과도입법위원의 부속사무실.

- 아이고, 진땀 뻘네.
- 글썄말이야, 시골에서 올라온 의원들이 어떻게나 사투리가 심한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 아직 미군정 치하이지만 그래도 일본말이 아닌 우리말로 회의하는 장면을 보니까 해방이 되기는 됐구나 실감이 나고 가슴이 뿌듯하던 걸.....
- 그래그래.
- 그건 그렇고, 속기를 일단 일본말로 해 놓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선말로 옮겨쓰지?
- 그러면 일단 그 속기내용을 일본말로 풀어쓴 다음에 다시 우리말로 옮겨써야지.
- 이봐, 거기 견습생?
- 예, 선배님.
- 속기 번문작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속기록을 보고 천천히 부를 테니까 일단 일본말로 받아적는 거야.
- 알겠습니다.
- 열심히 배워 두어야 견습생 너희들도 정식 속기사로 채용되어서 회의장에 들어갈 것 아니야?
- 예, 알겠습니다.

♠이 견습생이 오늘 우리에게 국회속기사들의 활약상을 들려줄 장본인이

다.

금년 일흔다섯 살의 김진기 씨.

(일본속기를 하던 분들이 우리나라 속기를 연구하고 가르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언한 것을 일단 일본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다시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나는 양성소에서 처음부터 우리말 속기를 배운 것이고 입법의원에서 정식 속기사로 있던 분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속기를 하던 분들이어서 그런 식으로 속기를 했어요.)

♣과도입법의원에서 일하던 속기사들은 일본어 속기를 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선 의원들이 우리말로 발언을 하면 그것을 일본식 속기로 받아적었다가 일본글자로 옮겨적는 번문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서 옮겨적는 방식으로 속기록을 작성했다는 얘기가.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군에 있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김 씨는 과도입법의원에서의 견습생 시절을 거쳐 1948년에 개원한 제헌국회 때 정식 속기사로 채용됨으로써 우리나라 의정활동의 기록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데 그러나 평생 동안 국회속기사라는 외길을 걸어 온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제헌국회 때 들어갔는데 그때 6?25 전쟁이 나 가지고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갈 때 같이 못 가서 9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정직되었다가, 국회가 다시 서울로 수복을 해 가지고 왔을 때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5?16 군사혁명이 나 가지고 또 국회가 해산되어서 3년 동안 놀다가 65년도에 다시 들어왔고 80년도에 또.....)

♣1980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해직되었고 89년도에 복직되었다가 정년퇴임을 했다. 국회속기사로서 그가 살아온 곡절 많은 삶이 해방 후 우리의 의회정치가 걸어온 내력과 엇비슷하다. 굴곡 많았던 우리의 의회정치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했던 속기사들의 애환과 그 활약상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우선 속기사들이 어떤 부호를 가지고 속기를 하는지 김진기 씨로부터 그 원리를 간단하게 들어보자.

(기본문자라고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이것이 다 있지만 기본문자만 가지고는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축자를 해서 단어를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동사, 형용사 등을 자꾸 축소해 가지고 빨리 쓰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죽 굿기만 하면 그게 ‘합니다’입니다. 그리고 ‘합니까’라고 하려면 ‘합니다’ 죽 그은 것 위에 점 하나만 찍으면 되고..... 뭐 이런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말들은 일일이 음절 단위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어휘를 간단한 부호 하나로 나타낸다는 얘기다. 따라서 능숙한 속기사들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언을 마침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적는 동작도 끝나치게 된다.

제헌국회 때는 의원들 간의 다툼으로 속기사가 속기록을 즉석에서 낭독하는 일도 있었다.

- 어디서 그따위 발언이야!
- 아니, 내가 언제 국무위원들한테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트집이야, 트집이!
- 아니, 뭐라고? 다른 의원들이 다 들었는데 계속 잡아떨어요? 국무위원들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했잖아! 발언 당장 취소하고 사과해!
-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 이봐요 의장, 조금 전 박 의원이 한 발언을 속기사한테 한번 낭독해 보라고 하세요!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속기록 낭독 제의가 통과되면 속기사는 글자가 아닌 부호로만 받아쓴 속기록을 들고 일어나 큰 소리로 낭독을 하게 되었다는데.....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야당이면 야당에서 발언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끄러우면 의장이 즉석에서 속기사를 불러 가지고 지금 발언한 의원의 발언을 낭독해라, 그러면 속기 원문을 가지고 발언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낭독을 하면 그 발언에 대한 시비가 판결이 나는 것이지요.)

- 빨리 낭독을 해 봐!

-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 하셨던 발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문제가 참 많아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했던 약속을 두 번씩이나 어겼어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이때 의석에서 발언취소 등 소란이 있었음 이상입니다.

- 그것 봐,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디에서 잡아떼려고 해!

♠ 그러나 속기록 낭독으로 불리해진 쪽이든 유리해진 쪽이든 자신들이 했던 발언을 부호문자로 된 속기록을 보고서 거침없이 낭독하는 속기사들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속기사들은 2인 1조로 회의장에 들어가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속기한다. 한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빠뜨린 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속기사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을 귀로 들으려해서는 안 되고 손끝으로 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보통 10분 동안 발언을 하면 글자수로 따져서 3,000자 내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적다 보면 우선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금새 피곤해진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교대를 한다.

그 2인 1조 중에서 경험이 많은 베테랑 속기사를 주무라 하고 그를 보조하는 속기사를 부무라 한다. 제헌국회 때는 지금의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라고 불렀는데 속기사가 통틀어서 1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속기사들이 본회의에만 참석을 했고 분과위원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그 시절에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는 요점을 정리해 놓은 회의록 형태로는 남아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상세히 적어 놓은 속기록은 작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속기사들로 하여금 진땀을 흘리게 만든 국회의원이 있

었다. 3, 4, 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선태 의원이었는데 속기사들 사이에서 그는 속사포로 통했다.

- 오늘 본회의 몇 시에 열리지?
- 예, 10시 반입니다.
- 가만 있자, 오늘 본회의 발언자 명단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나오잖아? 자네들, 잘 걸렸어. 그 속사포 만나서 어디 진땀 한번 흘려 보라고.
-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운동경기 중에서 농구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말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김선태 의원의 발언속도는 그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당의원이라면 보통 흥분할 일이 적어서 발언이 차분한데 반해 그는 자유당의 독재와 부패를 질타하는 데 선봉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속기사들이 기록하기에는 더욱 애로가 있었다.

1961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장

(만일 정당에서 공안위원회 구성을 다 해버린다고 하면 매일 같이 지금 국회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여야가 대립해 보고서 하나 작성할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을 바라볼 적에 공안위원회를 만일 정당이 대표해 구성해 버리면 여야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경찰력은 마비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근심하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 속기 잘했어?
- 못 받아적은 것이 많은데 큰일났네.
- 저기 김진기 씨?
- 예.
- 당신거 한번 가져와 봐, 김선태 의원이 한 발언 중에서 중간 부분 공안위원회 문제점 거론한 거말야.
- 저도 그 부분은 못 적었는데요.
- 그러면 할 수 없지워. 내일 아침에 김 의원님 사무실로 찾아가서 보여

주고 빠진 부분은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 다행히 김 의원은 자신의 말이 빠르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혹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도 속기사들을 탓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빨라도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속기할 수 있는 능력이 10분 간 약 3,000자 정도인데 김 의원은 녹음을 해 가지고 재 보니까 4,500자 내지 5,000자를 발연해요. 그 사람 별명이 속사포였는데 하여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 가지고 앞뒤로 말을 연결시켜서, 그러다가 정 모르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완전속기는 못 했어요. 그분이 하도 빨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김선태 의원이 나오면 속기사들은 야, 이거 또 걸렸구나 하고 바짝 긴장을 했지요.)

♣ 속기사들이 속기를 일반문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원사무실로 찾아가 전날 했던 발언을 보충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또 있었다. 사투리가 심한 의원들의 경우였다.

- 정부의 잘못된 농정 때문에 우리 농민들 마 다 죽게 생겼어야닌겨, 식량증산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카이. 구호식량 안 준다카이까네 농민들이 전부 시집해가 굶어죽겠다고 야단인데 농림 부장관, 한번 답변해 보이소.

♣ 속기체계가 표준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모두 표준어로 올라 있다. 그러나 의원이 발언한 사투리가 무슨 뜻인 줄 알아야 표준어로 옮겨 적을 것 아닌가?

(전혀 듣지 못했던 사투리가 많았지요. 속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깊은 지식보다도 넓은 상식이 필요해요. 자기가 아는 말을 해야 정확히 쓰지 자기가 모르는 발언은 그 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영어를 발언할 적에 그 음대로 쓰려고 하면 못 쓰거든요. 그 뜻을 모르니까요. 사투리 같은 것도 각 지역마다 다른 사투리를 속기문자로 전부 약자화할 수가 없어요. 다 못 해요. 그러니까 사투리는 본인한테 물어 가지고.....)

♣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속기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속기록을 함부로 고칠 수도 없을 뿐더러 고쳐달라고 하는 압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었다.

1950년대 초 부산 피난시절 국회사무처 속기과.

- 아니, 장관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 괜참네.....

♣ 속기과 사무실을 불시에 찾아온 사람은 조병옥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다.

- 어제 장택상 부의장 발언 기록해 둔 속기록 좀 볼 수 있나?
- 예.
- 장덕근 씨, 어제 본회의 주무였지?
- 예, 제가 속기했습니다.
- 장택상 부의장이 했던 발언 정리됐으면 좀 가져와 보게.
- 예, 장관님 여기 있습니다.
- 장택상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의정단상에서 나를 모욕하는 이런 발언이나 하고말이야. 이걸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구만.

♣ 그래서 조병옥은 국회부의장이던 장택상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고 장택상은 자신이 전날 했던 발언을 취소하겠다고면서 속기과 직원 장덕근을 부의장실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장 부의장이 속기사 오라고 해서 부의장실에 장덕근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런이런 부분은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삭제 못 합니다’, ‘의장이 삭제하라는데 왜 못 해’, ‘의장이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때 金泳三 씨가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김 비서를 오라고 하더니 ‘이놈의 자식이 의장 말을 안 듣는다, 빨갱이다, 뒷조사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나서..... 그때는 살벌한 시대였어

요. 아무나 막 잡아갔거든요.)

♣당시에 속기사 장 씨는 그일로 심한 노이로제에 걸렸고 물론, 그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얼마 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김진기 씨의 증언이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국회속기록을 열람해 보면 군데군데 괄호를 치고 ‘장내소란’ 이라 적어 놓은 부분이 나오는데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는 의원의 경우야 속기록에 그 내용을 담겠지만 의원들의 발언이나 국무위원의 답변 때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어떻게 처리할까?

(속기를 하면서 누가 발언했는지를 확실히 알면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의 내용을 속기하면서 그 저쪽에서 발언한 사람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록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떠들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장내소란이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잘 들릴 수 있게 얘기하면 ‘?뭘뭘? 하는 이 있음’ 이렇게 쓰지요. 정식 발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름은 못 넣고 ‘?뭘뭘? 하는 이 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우면 속기록에 ‘장내소란’ 이라고 쓰고 누군가 의석에서 한 얘기를 분명하게 알아 들었을 경우에는 가령 ‘?발언취소해?라고 외치는 이’ 있음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다.

제헌국회 시절에는 워낙 속기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회 소속이면서도 행정부에 불려가서 속기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김진기 씨 역시 공보처에 파견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속기로 받아서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1949년의 어느 일요일.

- (전화벨소리)

- (여보세요, 김진기입니다. 예? 공보처장님이시라고요? 어디를 가야 하는데요?)
- 지금 진해에 내려가야 하니까 빨리 옷을 갖춰 입고 공보처로 출근해요.
- 진해요? 경상도 진해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로.....
- 진해에서 각하하고 장계석 자유중국 총통이 회답을 하시는데 속기사를 속히 내려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 예,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 공보처로 올 것 없이 여의도 비행장으로 바로 나오라고요.

(공보처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공보처장이 두 사람을, 그때 국회에 있던 속기사 두 사람이 공보처에 촉탁으로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진해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해요. 그때는 민항기도 없을 때였거든요. 하여간 트럭을 타고 여의도로 갔어요. 그때 여의도에는 사람이 안 살았고 비행장만 있었어요. 사람은 밤섬에만 몇 집이 살았는데 여의도 비행장에 가니까.....)

- (비행장)
- 김진기 씨, 당신은 이쪽 비행기에 타고 이 사람은 저쪽 비행기에 타요

♣ 변변한 여객기 1대 없던 시절이라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본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다는데.....

남다른 직업을 가진 덕분에 김진기 씨와 또 한 명의 속기사는 조종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밖에 탑승할 수 없는 경비행기 2대에 나누어 타고 진해까지 날아가는 행운을 누렸다고 한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다.

(군에서는 의정부에서 격퇴했으니까 서울시는 안심하라고 했고 그러다가 28일인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수도결사사수결의를 했어요. 결의하니까 서울시민들도 피난갈 생각을 안 했고 우리 직원들도 피난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의한 그날 바로 대통령도 남하했고 국회의원도 연락받은 사람은 남하했어요. 우리 직원도 자기들끼리 연락된 사람들은 피난을 갔어요.)

♣속기사들도 일부는 부산으로 내려갔으나 김진기 씨 등 일부는 서울에 남아 숨어지내야 했다. 그러다 9?28 수복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던 국회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 아니, 무엇을 심사한다는 거죠?
- 그러니까 피난 못 가고 서울에 남은 사람들이 적 치하에서 부역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것을 심사한다는 얘기인데.....
- 김진기 씨는 어디에 있었어?
- 어디 있기는요, 고향에서 숨어 지냈지요.
- 젠장, 피난 가지 말고 안심하랄 때는 언제고 피난 안 간 사람들을 심사하겠다는 얘기는 또 뭐야.....

♣그러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1?4 후퇴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의 의정활동상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 아주 없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 국회의 각종 서류들을 서울에서 수원으로, 거기에서 다시 천안으로 이송했다가 부산으로 실어가게 되었는데 서류 수송을 담당하던 국회 직원이 서류수송 트럭에다가 자신의 개인화물을 싣고 가버리는 바람에 입법부의 중요서류를 운송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천안인가 조치원인가 어디에 갖다 놓고는 그 트럭에다가 자기 개인 짐을 실었어요. 그 바람에 천안에서 지키고 있던 직원 하나가 적은 자꾸 쳐내려 오는데 트럭은 안 오니까 생각다 못해 그 서류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것은 못 가져가도 속기록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속기사는 아닌데 속기록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지고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류는 다 없어졌지요.)

♣당시만해도 제헌국회 시절인데다 본회의 내용만 속기록에 담았기 때문에 부피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속기록을 짚어지고 부산에 간 그 직원은 표창을 받았고 서류운송책임자는 면직처분을 당했다는 것이 김진기 씨의 증언이다. 물론 김진기 씨 자신도 1?4 후퇴 때는 피난길에 합류했

다. 6?25 전쟁 당시 국회속기사들은 대부분 부업으로 통신사의 일을 겸했는데 순전히 속기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통신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RP통신이었다.

(전쟁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보가 일본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 의장단에서도 정보를 빨리 얻으려면 일본방송을 들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속기사한테 일본방송을 속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일본말로 속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좀 확대되어 가지고 RP통신 이라고.....)

♣전황파악이 어렵던 시절 속기사들이 일본방송을 속기해서 그 내용을 정부기관은 물론, 언론사에도 제공했는데 그것을 라디오 프레스 즉, RP통신 이라고 불렀다.

민주적 의회정치나 건전한 토론문화의 전통이 일천한 관계로 국회의 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의 격한 다툼이 잦았는데 그 영향이 속기사들의 수난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제헌국회 때의 얘기다.

- 왜, 방해해! 끝까지 들어봐!
- 들어봐요.
- 지금은 본 의원의 발언시간입니다, 반론이 있으면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 말같은 소리를 해야 참고 들어주지! 그만 내려오지 못해!
- 그래요!

♣이런 소란상태가 계속되는가 했는데 한 의원이 의석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명패를 단상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런데 날아간 명패가 단상 못미쳐 속기석에 떨어졌고 속기사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히고 말았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명패가 옆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길게 세우게 되어 있었어요. 이름을 세로로 썼거든요.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게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이준수 의

원이 막 내려오라고 야단을 치더니 갑자기 명패를 들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한테 획 던졌어요. 그런데 그 명패가 속기사한테 맞은 거예요. 명패로 이마를 맞은 속기사는 아프니까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서는 계속 속기를 했지요.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는데.....)

♣ 한 손으로는 피가 줄줄 흐르는 이마를 짚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의원의 발언을 기록해야 했으니 그 속기사의 심사가 어떠했겠는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명패를 가로로 써서 눌렀고 아예 좌석에 고정시켰다고 한다. 그렇다고 집어던질 물건이 없는 게 아니었다.

- 아이, 참나,
- 아예 집어치워!
- 똑바로 하지 못해!
-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예이, 아.....

♣ 재떨이었다. 당시만 해도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좌석마다 유리재떨이를 비치했는데 흥분한 의원들이 그것을 집어던졌고 애꿎은 속기사들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리재떨이를 양은재떨이로 바꿨는데..... 흥분한 의원들이 그 양은재떨이를 던지면 회의장 허공으로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것같은 진풍경이 연출되곤 했다. 물론 회의장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종류의 소란 중에서 가장 압권은 김두한 의원의 오물투척 사건이었다. 그때도 속기사들이 그 오물을 뒤집어썼다.

(그 당시는 발언대가 여기에 있으면 속기사가 그 밑에 있었고 그 옆으로 국무위원이 죽 앉았거든요. 지금은 발언대와 국무위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그때 정일권 국무총리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해서 죽 앉아 있었는데 밀수하는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봐준 당신들도 똑같은 범죄인이라고 하면서 깡통인데 풀어 가지고 확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 속기사가 뒤집어쓸 수밖에요.)

♣ 이제 우리의 의정사를 돌아볼 때 빠뜨릴 수 없는 이른바 날치기 파동에

엄힌 속기사들의 애환을 더듬어보기로 하자.

1958년 12월 24일.

- 자, 여러분, 지금 자유당 의원들이 모처에서 야당탄압과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할지 모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오늘밤도 밤을 새서 의사당에서 농성을 계속합시다.

기존의 국가보안법만해도 간첩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안법 적용대상을 넓히고 이적행위의 개념을 확대한다, 이것은 곧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 야당과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책입니다, 여러분!

- 옹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당 의원들의 강행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임시경위 300명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경위 복장을 입혀서 국회를 전부 점령했어요. 그래 가지고 야당의원들이 농성하는 것을 끌어내고,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네 명이 달려들어서 양쪽팔을 잡고 끌어내서 지하실 계단 밑에 내려 놓고, 그리고 여당 의원만 들어와 가지고 각종 법률안 중에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과 그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원래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본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회의장에서 12개 분과위원회를 전부 다..... 여기는 법사위원회, 여기는 무슨 위원회, 여기는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하는데.....)

♠야당의원들은 강제로 끌려나가고 여당인 자유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300명의 무술경관들이 의장을 겹겹이 둘러쌌었다.

- 자, 속기사들, 다 준비됐지? 그러면 전부 완장들을 차라고. 완장을 차야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

- 우리는 국회직원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완장을.....

- 지금 무술경위들이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완장이 없으

면 입장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놓인 화판을 하나씩 목에 걸고 나가도록 해요.

- 그럼 그리는 화판을 목에 걸고 나가라고요?

- 아이 참,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완장 두르고 화판 매고 얼른 가자고요.

♣어깨에는 완장을 차고 목에는 야유회 사생대회에 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화판 하나씩을 매고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광경인데 그러나 그안에서 벌어질 일들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화판 몇십 개를 사다가 속기사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완장을 차고..... 국회직원들도 얼씬 못하게 했거든요. 경위라고 하는 경찰이 와 가지고 꼼짝 못 하게 했으니까요. 완장을 찬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완장을 차고 화판을 매고 들어가서 위원회별로 두 사람씩 서서 무슨 법안 통과시킵니다 하면 그것을 쓰고, 그다음에 그 12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또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날치기를 했는데.....)

♣법안 하나가 의결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순서였는데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에 갔다가 다시 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 군데군데 무슨 무슨 상임위원회 하는 식으로 12개 상임위원회를 정해 놓고 몇 걸음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속기석을 따로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기사들은 화판에다가 종이를 대고 선 채로 기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속기원문을 탈취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중요한 법안을 여당의원들이 단독으로 심의를 하다니, 어이 속기사, 어디 그 기록 좀 내놔봐!

- 의원님, 이것은 속기 원문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 원문이든 아니든 이리 내놔보라니까!
- 안 됩니다, 의원님.....
- 이리 못 내놓겠어!
- 이걸 무효야, 속기록 필요없어!

♠ 그 야당의원은 속기록을 나꿔챈 다음에 즉석에서 찢어서 자기 주머니에 찢러 넣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속기사는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보안법 파동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데 야당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해 가지고 극한반대를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날치기로 막 통과를 시켰는데 속기사가 그 통과시키는 것을 속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도 와서 속기원문을 확 뺏었다고요. 국회의원이 뺏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의원은 그것을 찢어 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 그 속기사는 큰일났다 싶어서 찢어진 조각이라도 다시 찾으려고 그 의원을 졸졸 따라다녔다는데 여당 측의 날치기에 흥분한 그 야당 의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날치기 통과와 무효를 주장하고 다녔고 그러는 중에 찢어진 속기록 조각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물론 속기사는 그 조각들을 재빨리 주워 테이프로 이어붙여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을 뒤 그 속기사는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속기록부터 우선 품속에다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그 속기사의 이름이 김백곤이었다.

보안법 개정안이야 그래도 일개 법률안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적이 있었다. 朴正熙에게 3선의 길을 터주기 위한 이른바 3선개헌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1969년 9월 14일 저녁.

당시 속기와 계장이었던 김진기 씨는 국장의 부름을 받고 국장실로 들어갔는데.....

- (똑똑똑) 국장님, 부르셨습니까?
-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키고 김 계장 외에 속기사 4명만 대기시켜.
-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고.....
- 어허, 속기과장한테는 얘기할 게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 알겠습니다.

♠태평로에 있는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이 당시의 국회의사당이었고 그 맞은 편에 제2, 제3의 별관건물이 있었는데 속기과는 제2별관에 있었다.

- 아, 그 대기하라는 속기사들 어디 있어?
- 예, 이쪽에 다 있습니다.
- 바깥에 불빛 새나가지 않게 등화관계 확실히 하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으라고.
- 그것 참 이상한 일이네, 등화관제를 하고 쥐 죽은 듯 기다리라니..... 전쟁이 터진 것은 아닐 테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우리는 전혀 몰랐지요. 다 퇴근시키고 속기사 4명만 대기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바깥에 불이 비치지 않게 했어요. 그때 우리는 2별관에 있었는데 사무실 불을 켜놓으면 바깥에 불빛이 나가니까 별관 불을 다 끄고 구석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되니까 어디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4명을 데리고.....)

- 의사국장님, 지금 저희가 어디에 가는 길인지.....
- 조용히 하라고, 지금 건너편에는 신민당 의원들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어, 저쪽 제3별관으로 가는 거야. 속기사는 회의가 열리는 곳이면 시간 불문, 장소불문하고 가서 임무만 수행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 아니, 이 새벽에 3별관에서 무슨 회의가 열립니까?
- 가보면 알아.

(사람이 다니지 않던 문을 열어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다가

회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들어오더라고요. 이효상 국회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그냥 통과시킨 거죠. 통과시키고 나서 여당 의원들이 나가니까 그때야 저쪽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공화당에서는 다 피한 뒤이고.....

♣ 물론 속기사들이야 직속상관인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면 그뿐이겠지만 변칙과 날치기 등 파행적인 의회운영의 현장 목격자로서 개인적인 느낌이 남다를 텐데.....

(나도 그렇지만 그 당시 국회직원들, 특히 속기사들은 전부 야당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발언하는 것을 보면 야당이 옳았거든요. 말하자면 독재치하이니까 속으로는 여당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업무를 할 때는 개인감정을 떠나서 하는 것이고.....)

♣ 제2공화국 시절 김진기 씨가 참의원 속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는 간첩에게 국회속기록을 넘겨 주었다는 혐의로 치안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전에 속기사로 있던 분이 법률신문사라는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했어요. 편집국장이 친구였고 언론사에 속기록을 배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간첩한테 속기록을 주었고 마침 그 간첩이 붙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났느냐, 누가 주었다, 그때 그 친구는 간첩혐의로 붙잡혀 가서 7년을 살고 나왔어요.)

♣ 김 씨는 혐의가 없어 풀려났는데 뒷날 자신을 취재했던 형사를 우연히 만나 술잔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형사로부터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 김형, 그때 그 일, 나한테 고마운 줄 아쇼!
- 멀쩡한 사람한테 간첩하고 내통하지 않았느냐고 억박지르던 사람한테 뭘 고마워 해요?

- 모르시는 말씀, 실은 이 정부에서 보안관계법을 개정해서 강화시키려고 국회침투간첩단 사건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씨가 그 희생양이 될 뻔 했고.....

♣그 형사의 말은 괜한 공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김진기 씨의 얘기다. 치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선 상사인 국회 의사국장에게 찾아갔었는데.....

(의장실에 갔어요. 운영위원장하고 같이들 앉아 있었는데 내가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치안국에 연행되어 갔고 아무 일도 없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장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 하면 내무부차관이 의장한테 ‘간첩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 크게 보도해 가지고 이런 간첩이 국회까지 침투했으니까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의원들의 발언을 직접 손으로 받아 적는 수필속기사는 양성소 자체가 없어서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컴퓨터속기라는 게 등장해서 속기부호를 컴퓨터로 치면 곧바로 문장으로 변환된다고 한다.

정부 수립 이후 곡절 많은 우리 의정사의 면면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해 온 속기사 김진기 씨.

컴퓨터로 속기부호를 두드리기만 하면 일반문장이 되어서 출력될 정도로 속기기술이 발달한 지금 그 기술의 향상만큼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문화수준도 한층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협회 홍보부장)

전국법원속기사협의회 발족

홍 보 부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전국의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국법원속기사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총 97명의 회원 중 33명이 참여한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및 협의위원을 선출하여 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향후 협의회의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장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오은경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유미정 회원, 총무에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지영숙 회원, 홍보부장에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이경희 회원, 서기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백정선 회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협의위원으로는 서울고등법원의 유소라 회원, 서울가정법원의 김영숙 회원, 서울행정법원의 오은주 회원, 서울지방법원의 권지선 회원, 남부지원의 이경희 회원, 동부지원의 정미택 회원, 북부지원의 백정선 회원, 의정부지원의 이인옥 회원, 부천지원의 강숙희 회원이 선출되었다.

이날 논의되었던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본 협의회는 현재 속기사들이 법원에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단지 불평, 불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전국법원속기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문의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여 속기사들의 처우와 여건을 개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법원에 입사하게 될 후배들에게는 국회 속기사들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환경

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정보 및 자료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자문을 얻는 형식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처가 속기사 문제를 쉽게 처리함은 속기사들 스스로가 방관만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뭉치면 산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지금 우리들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는 진정 멋지고 똑소리 나는 속기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울·경기지역의 법원속기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법원 속기사들의 참여가 다소 미비한 점이 작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회원의 참여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것을 희망하면서 진정 멋지고 똑소리 나는 속기인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알려드립니다.

전국법원속기사협의회회원 중 서울고등법원 유소라 회원 외 8인, 서울행정법원 오은주 회원 외 3인, 서울지방법원 신성희 회원 외 39인, 인천지방법원 오은경 회원 외 18인, 수원지방법원 김우영 회원 외 4인, 대구고등법원 이연희 회원 외 1인, 대구지방법원 여지수 회원 외 23인, 부산지방법원 이연정 회원 외 4인, 전주지방법원 조선옥 회원 외 1인 등 총 110인이 10월 29일자로 대한속기협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속기협회” -법원속기사의 협회 가입을 계기로-

김 점 동

협회는 2003년 12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단양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제11회 속기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날 주제발표를 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님이나 국회사무처 김종두 법제실장님의 훌륭하고 격조 높은 강의는 우리 속기인들이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준원 교수님이 발표한 ‘사법부의 속기 현황 및 전망’이라는 내용의 전반 부분은 협회가 발간한 ?한국속기 50년사?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필자는 ?한국속기 50년사? 중 법원속기사 부분 등의 집필에 참여했었고 그 당시에는 주로 그동안 발간되었던 ?속기계?가 바탕이 되었다. 이것을 인용한 정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니 새삼 ?속기계?의 위대함이 느껴지면서 이 뜻깊은 즈음에 한 줄의 글로써나마 법원속기사의 대한속기협회 가입을 축하함과 동시에 애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현재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속기사는 약 300여 명이고 이 숫자는 순수 재판사무에 종사하는 법관 및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전체의 약 7.5%(전체 법원 직원의 3.5%)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이다. 이들 중 우선 190명이 2003년 9월 27일 법원속기사협의회(회장 오은경, 인천지방법원)를 발족시켰으며 이번 속기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협회 회원으로 122명이 가입하였다. 이는 속기 역사에서 보자면 명실공히 우리 협회가 ‘대한민국 속기협회’로 거듭나는 매우 뜻깊은 일인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속기사의 법원진출은 1960년대의 가벼운 논의를 거쳐

1975년 법원 참여서기에 대한 1주일간의 강의, 1976년 7월 1일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대법원규칙 제612호)으로 제도 도입, 동년 9월 20일 국회속기사(10명)의 법원 주사급으로의 전직으로 그 서막을 여는 듯하였으나 1978년 법원용어 적응부족, 번문시간의 소요, 문서화하는 데 따른 지식과 기능의 부족, 법원사무직렬로의 전직과 퇴직 등으로 말미암아 1981년까지 속기사 381명의 채용계획과 더불어 법원속기제도는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1991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민사사건의 집중심리제도 시험실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집중심리제도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원·피고가 법원의 핵심쟁점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심리를 한 뒤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때 원·피고와 증인들을 대상으로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것을 기록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2년 7월 1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속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 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장송달 후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토록 했다. 한마디로 기존의 예/아니오 식 증인신문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한편 1992년 11월 12일자 주간조선 제1227호에 ‘컴퓨터속기 개발’이라는 이견우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본 서울형사지방법원 이정락 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과 서용범 과장이 고려속기학원으로 전화를 하여 접촉이 시작되었다.

1992년 11월 20일 속기관계 자료를 수집·완료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컴퓨터속기 개발학원인 고려속기학원과 설명회 개최에 합의하고 동월 24일 오후 1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국장, 각 과장, 실장과 관심 있는 판사 및 각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 설명을 한 사람은 현 한국스टे노의 손석련 이사이고 설명회 중 법원관련 문서를 정상덕 씨가 약 3분간 낭독하고 김은숙(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씨가 실연을 한

후 즉석에서 수정되지 않은 채로 출력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때 손석련 씨는 컴퓨터속기사가 귀하고 속기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법원직제에 있는 대로 1급속기사는 일반직 7급, 2급속기사는 8급으로 임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참석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등의 사전점검을 위해 속기사와 장비의 무상제공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1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곧바로 ‘컴퓨터속기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고 그 목적으로 ‘최근 개발된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제도를 법원에 도입?정착시켜 널리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판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컴퓨터속기제도 도입을 위하여 제도도입 준비, 제도의 시험운영, 제도의 정착 절차를 마련하고 그 준비사항으로 컴퓨터속기에 대한 설명회 개최, 컴퓨터속기사의 법정 참관(현장업무 분석), 제도와 활용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컴퓨터속기사의 급료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시험운영 방식으로 컴퓨터속기학원에서 기초과정(2개월)과 집중교육훈련과정(6개월)을 마친 속기사(1급) 2인을 속기서기보로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녹음해 온 테이프를 이용, 컴퓨터속기 훈련을 2~3개월 실시한 후 특수언어에 대한 약어사전의 마련과 법원실정에 맞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수정과 환경적 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실제 법정에서 컴퓨터속기를 함으로써 실용화하는 데 대한 문제점 등을 점검?보완하고 전면실시에 따른 준비를 마쳐 담당 과장의 지도하에 과제별 진행상황 등을 문서화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컴퓨터속기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속기서기보 등을 채용,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속기 담당직원의 전담 사무실 배정 또는 어느 1개 과에 소속시켜 근무할 수 있게 하

며 컴퓨터속기를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였다. 행정 및 기타사항으로는 속기서기보 등 정원조정 조치로서 속기 가능한 사람을 채용, 컴퓨터속기를 시험운영하고 나아가 본격적으로 컴퓨터속기 시행을 위하여 속기서기보 등 정원의 배정, 기기구입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곧이어 12월 2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합의과에 김은숙(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씨와 김현주(현 서울지방법원) 씨를 배치했고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합의한 대로 고려속기학원에서 부담하였다.

이 실험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시행된 데는 지금까지의 속기사 제도도입 실패의 부담감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표방한 법원 측의 신중함이 작용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1993년 1월 4일 1단계로 법정의 재판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데이터화했고 동년 1월 19일 참여사무관들로부터 속기록이 조서작성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등의 현황 파악과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설문 조사를 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1993년 11월 12일 개최된 ‘전국법원 형사과장회의 요록’(법원행정처)을 보면, 1993년 5월 30일까지 시행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o 조서작성에 시간적 도움이 되었음

- 1시간 법정에서 녹취한 사건에 대한 비교로서 참여사무관이 속기록 작성과 문서화 하는 데 총 1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명의 속기사는 20분 ~ 30분씩 교대로 하여 2시간 40분이 소요되었으며 국가보안법(간첩) 사건 43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1개 재판부가 1주 동안에 5회까지 재판을 하였어도 2명의 속기사의 협조로 재판진행에 차질 없이 조서를 작성하여 마칠 수 있었음.

o 조서의 정확성

- 정확한 컴퓨터속기로 법정진술 중 간과한 사항을 찾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음.

- 재판장, 참여사무관 등이 알고 있는 사항을 속기사가 속기하게 되므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

- 정보사 사기사건 등과 같이 지능적이고 복잡한 사건의 피고인 및 증인 신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었음
- 무죄 등을 다루는 중요사건에서 조서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또한 실제 이용한 참여사무관 등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o 법원에서 컴퓨터속기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음.
- o 현재 컴퓨터속기를 필요로 하는 사건은 공안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무죄를 다루는 중요사건, 증인·피고인 수가 많은 사건, 사기·배임사건, 논점이 복잡하고 주장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내용을 단정적으로 조서화하지 못하는 사건 등이었음.
- o 시간적 도움으로는 1시간 녹음테이프는 약 9~11시간 소요하여 녹취하지만 컴퓨터속기를 이용한 경우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음.
- o 속기록의 디스켓을 이용, 직접 조서를 출력할 수 있었음.
- o 개선사항으로는 속기록에서의 대화자 구분, 속기사들에게 공판진행절차 속지케 함, 속 기록을 조서양식에 맞게 하여 바로 조서화를 바랐음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 o 지속적인 속기용어 연구, 법률적인 보완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수필속기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속기타자기를 이용한 속기검정 합격자에게도 국가 기술자격증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속기기구를 이용한 속기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o 형사소송규칙에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철하게 되어 있으나 수필속기를 행한 자도 고도의 능력이 없는 한 얼마 지난 후에는 보통의 문자로 옮겨 적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인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원본을 해독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속기원본과 함께 속기록 첨부를 원칙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o 속기사의 전문용어 습득을 위한 교육, 예컨대 사전에 공소장을 읽게 하거나 그 분야를 연구한 다음 법정에서 들어가게 하고 전문적인 법률용어의 약어표(약자)를 새로고 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속기록의 직접 조서화, 법원소속 속기주사 등의 제도 시행 - 2명의 1급속기사가 현재 사무보조원으로 시행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들의 능력, 사회적 지위, 국회, 지방의회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대우로서 차후 계속 근무하게 될지 의문시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에 있는 속기주사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형사소송규칙 제31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에는 1949년 최초로 실용적인 속기기계를 발명한 자를 재판소 사무관에 임명하여 법정속기의 실험적 연구를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1957년 5월 재판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각 재판소에는 재판속기관(재판소법 제60조의 2)과 재판소 속기관보(동법 제60조의 3)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현재까지 속기사 제도는 잘 활용하고 있음.
- 장부 등의 비치 - 속기사건부, 속기록 표지, 속기일지 등의 작성과 편의적 속기록 등의 보존방법 등을 연구하여야 할 행정사항이 많음.

결론적으로 컴퓨터속기를 이용한 공판조서 등의 작성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한편 이 당시의 2명의 속기사들은 법원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 예로 대부분의 참여사무관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서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숙고 끝에 식사 선택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1992년 12월 21일부터 배치된 속기사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던 고려속기학원 측에 대하여 1993년 2월 법원 측은 법원의 운영비에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법원이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1993년 3월경에 이르러서는 법원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결방안을 찾던 중 일단 사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추후 일반직이 부활될 때 바꾸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 과정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서 이때까지는 애초의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에 있는 속기주사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무의욕을 높이

겠다는 계획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다. 이 실험적인 2명의 속기사는 법원으로서의 정식 속기사 진출이라는 희망을 안고 1993년 미군의 한국여성 살인사건인 윤금이 사건이 중요한 쟁점이 되자 실제 법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컴퓨터속기를 하기도 했다. 이후 全斗煥, 盧泰愚 전직대통령 재판 등 중요한 재판에는 모두 컴퓨터속기사들이 직접 법정에서 기록을 하는 등 신속한 기록으로 재판과정을 적극 도왔다.

1994년 1월 CAS컴퓨터속기 개발을 완료한 한국스테노 측은 법원행정처와 접촉하여 일반직 직제 부활을 촉구하는 등 일반직 직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태도는 갑자기 냉랭하게 바뀌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당시 법원행정처 송무 심의관은 ‘현재 근무 중인 6,000여 여성사무원들을 G라는 기종으로 3개월만 교육시키면 속기사로 만들 수 있다는데, 왜 당신들은 속기사 자격취득이 힘들다며 일반직 7급의 직제를 부활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C기종은 법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속인다는 오해 속에 박대 아닌 박대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와중에도 199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김성운을 일반직 7급(속기주사보 시보)에 임용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이 당시부터 일반직으로의 임용은 이미 물 건너 간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우리 속기인들이 서로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서 공동의 파이를 키우는 커녕 빼돌려진 경쟁심으로 전체 속기인들의 앞길을 짓밟아 버린 결과가 되었고 법원속기사 동지들을 지금까지 한숨짓게 만든 치명적인 잘못이라 할 것이다.

1995년 3월 29일자 대전매일신문에는 ‘컴퓨터 법원 속기기계 채택 6,000여 대 15억 원 납품 개가’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실행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각 신문에 ‘부당광고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음’을 공시한 것으로 허위기사임이 확인되었다. 이 기사로 미루어보건대 G기종이 훨씬 후에 법원에 기계를 납품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같은 해 컴퓨터속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신중하게 추진하던 법원은 독주하던 C기종 외에 G기종이 뛰어들었고 또 ‘3개월만 교육하면.....’이라는 말에 두 기종을 경쟁시켰고 G기종은 자신만만하게 속기용 키보드 기종선정을 위한 시범실시를 건의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G기종 7명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인천 법원에, C기종 6명을 서울, 인천, 수원 법원에 각 1명씩 배치하였다. 이들은 시범실시를 위한 임시배치 상태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법원 10등급 수준의 용역직 신분으로 법원에 들어갔고 계약기간이 끝난 1996년에 법원 10등급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한마디로 속기사를 평가절하한 것이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두 기종 간을 저울질할 수 있게 되어 좋았는지 몰라도 속기계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 기종으로 독점 결정된 바 없고 속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누구나 법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긴 뭐 3개월만 배우면 속기사가 된다는데..... 실제로 G기종은 그 후 법원 현직 사무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성과 없이 교육이 종료되었고 속기업무에 투입된 사무원도 없었다.

그 후 1997년까지 지지부진하던 법원 속기사 진출은 법원의 용역계약 방침에 따라 용역회사와의 계약관계로 전환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자체 시험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속기사를 한 명이라도 더 진출시키기 위한 경쟁 상태에서 용역회사는 아무런 이득 없이 관리비용 및 세금부분을 공제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열악한 보수와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컴퓨터속기사들은 이런 부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속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스승인 ‘속기사 양성 회사’에서 배출된 제자 관계를 감안하면 속기인의 “순정”이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하던 정 모 속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재계약을 거절당하고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법원 대 회사의 용역구도는 서서히 깨어지고 개인별 용역 구도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계약직공무원이라는 체제가 성립되어 현재 법원 속기사 진

출의 2원구조가 성립되게 된 것이다. 현재 법원 컴퓨터속기사 300여 명 중 C기종을 사용하는 속기사는 270여 명, G기종을 사용하는 속기사는 30여 명이며 기종에 관계 없이 상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법원 당국도 정말 이제는 속기사 없이는 재판이 힘들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법원속기사들의 법원진출에 관해 대략 살펴보았다. 대한속기협회에 가입한 법원속기사들에게 작으나마 우리 협회가 힘이 되어 주고, 그들의 애환을 같이 나누고 덜어 주는 일에 속기동지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진정 우리 속기인들은 ‘대한민국 속기협회’의 기치 아래에서 “기록보국”이라는 큰 명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서게 될 것을 확신한다. ♡법원 속기동지들, 어서 오세요. 속기동지들 만세!♡

(대한속기협회 이사, 동우 S&C)

김점동 선생님 동정

전국의회속기사협의회 ‘회의의 실제’ 강의; 전주유스호스텔(03.6)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사무국장연수회 ‘정관해설 및 회의운영’
강의; 경주교육문화회관(03.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각종 회무관리’ 강의; 복지회관(03.10)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7월-12월호(격월간) ‘회의도 경쟁력이다’ 연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정 향 인

국립국어연구원은 우리나라 어문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는 기구로서 특히 국어사전 편찬, 각종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보급을 통하여 언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각종 어문 자료를 수집하여 국어 유산을 보존·연구하는 한편, 국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언어생활 상담전화인 ‘가나다 전화’(02-771-9909)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어의 규범에 관한 연구 및 그 보급, 국어의 역사와 체계화에 관한 연구,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성과의 정리와 보급 등 국어연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국어연구원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일반 국민들이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잘 이해하여 국어사랑이 곧 나라사랑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말의 큰 줄기가 잘 이어지도록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여 생활언어를 순화하며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언어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재외국민 교육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한글의 기계화·과학화를 꾀하여 문자생활을 현대화한다는 사업의 방향 아래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는 국민에게 올바른 어문규범을 보급하여 전 국민이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국립국어연구원이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1992년에 문을 열었다.

원내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일반인반과 교사직무연수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강좌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바른 문장 쓰기, 국어 순화,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화법, 언어 예절 등 국민들이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내 국어반은 주로 교사, 공무원, 편집인이 참여하여 2000년에는 13회 1,113명이 수강하였고 2001년에는 19회 1,264명이 수강하였으며 2002년 전반기에는 3월에서 6월까지 12회 883명이 이미 수강하였거나 신청하여 국어의 쓰기와 말하기의 국어교육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업무현장에서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상당수의 기관에서는 국어문화학교를 직원들이 반드시 거쳐 나가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8월에 교사 직무연수가 1회, 9월~11월에 공무원·일반인반 교육이 6회 있었으며 국어교육 신청은 6월경에 받는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연구원이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출장강의이다. 국어연구원에서는 원내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로부터 국어교육에 대한 큰 호응을 얻게 되자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출장강의는 2001년에 총 126회로 1만 5,538명에게 강의를 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19곳에서 25개 강좌를 통해 1,800명에게 출장강의를 하였고 4월에는 24곳, 5월에는 35곳, 6월에는 34곳에서 출장강의를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의 출장강의는 성인 5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출장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후반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는 9월부터 11월까지이고 신청은 6월부터 받는데 연구원 측에서는 특히 낙도, 오지에 사는 일반 국민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의 강의과목, 신청방법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강 인원이 1회에 50명 이상이어야 하고 수강 희망강좌는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① 바른 국어 생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실제 사례(중급)
- ② 기초 맞춤법 강의: 쉽게 풀어 설명하는 한글 맞춤법의 기초(초급)

- ③바른 문장 쓰기: 문법에 맞는 문장 쓰기,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작문상의 실수를 예를 중심으로 설명
- ④공문서 바로 쓰기: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 순화, 중의적 문장, 주술 간의 호응 관계, 접속구조의 문제 등
- ⑤띄어쓰기: 띄어쓰기의 원리와 실제 사례
- ⑥표준어 규정: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어 규정의 실제, 자주 틀리는 사례
- ⑦표준 발음: 표준 발음의 요건, 모음의 발음, 소리의 길이, 자음의 발음, 받침의 발음 등
- ⑧외래어 표기법: 외래어의 정의와 특징,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외래어 표기법 의 기본 원칙, 외래어 표기의 실제 사례
- ⑨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과 구체적인 실례
- ⑩국어 순화: 국어 순화의 특징과 구체적인 실례, 필요성, 대상, 방법, 접근 태도, 일본어, 일본어식 한자 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변형된 국어
- ⑪언어 예절: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 사회에서의 호칭어·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
- ⑫국어 문법: 국어의 문법적 특성, 문장 성분과 문장의 기본 구조
- ⑬시와 언어의 만남: 시와 병렬법, 패러디, 아이러니, 은유, 상징, 소재 전통 등
- ⑭고시가의 이해: 향가, 고려가요, 시조 등의 이해
- ⑮속담의 이해: 속담의 생성 과정, 속담의 종류, 실례
 - 국어 어원: 국어에서 나타난 어원의 실제 사례들
 - 언어와 문자: 한글의 글자, 한글의 명명, 세계 속의 한국어, 세계 속의 한글 등
 - 언어와 사회: 언어 발달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등

참고로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를 방문한다면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홍보부 기자)

늘 첫날처럼

이 순 영

언제인가부터 새해 첫날에는 일출을 보러 간다. 온 가족이 해돋이를 봐야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이다.

올해는 왜목마을을 향해 달리며 한 해의 희망을 품었다.

안개가 바다도, 산도 다 감춰버린 서해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발갱게 떠오르는 해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안개 속에서 오롯이 떠오르는 해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은 한 해의 바람을 말해 보기로 했다. 남편은 화목한 가정을, 큰딸은 공부 잘하기를, 작은딸은 건강을 기원했다.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며 새해를 맞았다.

나는 우리 가족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새해에 나는 내 친구를 닮고 싶다.

지난해 연말에 만났던 그 친구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주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그 친구는 약속이 없다. 근육무력증으로 운신할 수 없는 열일곱 살의 상민이에게 점심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같은 청년에게 손이 되어 밥을 먹게 해 주는 것이다. 때로는 휠체어를 빌려 테크노마트같은 곳에도 데리고 나가 넓은 세상을 보여 주는 역할도 한다. 그 친구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고 노래했던 어느 시인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그런 친구가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봉사는 내 것이 남아서 남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주현이와 곤지암에 사는 한 아줌마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혼자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주현이는 무척이나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공부를 하려면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태릉까지 한 달에 두 번은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주현이에게는 큰 걸림돌이었다. 그런 주현이의 발이 되어 주고자 기꺼이 나선 분이 바로 발농사를 짓는 보통의 아줌마이다. 농사일로 몸이 지친 가운데에도, 가족과 함께 쉬고 싶은 일요일에도 그 아줌마는 어김없이 차량봉사를 하며 주현이가 대학의 자립생활지도자 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기사를 통해 봉사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 솟아나는 맑은 마음이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남에게 줄 것이 있다.

불행한 사람도 얼마든지 남에게 줄 것은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불행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특별한 날이나 소중한 사람을 위해 나눔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이나 ‘봉사’ 하면 평생을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마감한 데레사 수녀가 어김없이 생각난다. 그분은 천국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해 하실 것 같다. 오죽하면 ‘데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을까. 마더 데레사처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 몸에 면역물질이 생긴다고 한다. 오랜 수행의 징표로 나타나는 스님들의 ‘사리’와 같은 이치일 듯, 나눔의 정신이 건강한 육체의 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래서 나눔은 남에게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본다.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다. 버려져도 괜찮은 생명은 있을 수 없기에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지만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움일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들, 모든 기능이 쇠퇴한 노인들, 태어나면서 아니면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장애인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살 만한 세상이지 않겠는가. 어느 노인병원에서 봉사하는 한 처녀 지체장애인은 걸음 한 걸음이 힘겨운 상태이지만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봉사란 특정의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보통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아니 보통의 우리들에게도 어떤 몫이 있다고 본다.

甲申年 새해에 나는 내 친구를 닮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내 두 딸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해 주면서 ‘나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다. 또한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리하여 ‘나눔의 문화’를 공유하는 가족이 되고 싶다.

작은 바람이 너무 커져버렸지만 말이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4담당)

智 異 山

김 재 학

첫째날 -- 영등포의 밤으로

밤기차에 몸을 엮어 멀어져 가는 차창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낙엽이 지기 전 가을을 걸어 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배낭을 메고 영등포역으로 향한 시간이 10월 19일 밤 11시 30분, 밤을 이기기 위해 모여든 역 대합실의 풍경이 떠나는 길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디론가 바빠 움직이는 무리들과는 달리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대합실 여기저기에 터를 잡고는 피곤한 육신의 하루를 눕히기 위해 신문지를 펴고 웅기종기 모여 있는 노숙자들이 가슴을 짓누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언저리에 아직도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지내온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끄러움.

구례를 향해 떠나는 기차는 가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등산객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밤으로 빠져 들어간다. 참으로 오랜 꿈을 이룬 설렘 때문인지 열차안에서 잠을 자고 새벽부터 산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통 잠이 오지 않는다. 쉼 넘어 아내와 함께 한 밤기차는 적막이었다가 설렘인가 하면 때로는 그리움으로 내 가슴에 오버랩되며 차창을 때려댄다.

20일 새벽 5시 30분, 전라남도 구례역에 도착하니 아직은 깜깜한 새벽, 근처 해장국집에서 간단한 아침을 하는 느낌은 또 다른 아픔, 이게 웬 흥분이란 말인가, 6시쯤 택시를 타고 성삼재까지 올라가는데 구불구불 산길을 헤치며 어둠을 가르며 택시기사는 능숙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친절하게 지리산을 소개한다. 금년에만 벌써 세 번째 찾아온 지리산이지만 이런 새벽등반은 이십 몇년만인 것 같다. 내가 지리산을 처음 찾은 것은 1977년도 10월, 그때도 밤기차를 타고 와서 새벽등산을 했는데 국회산악회를 통해 단체로 등산을 해서였는지 그저 왁자지껄 온 산을 헤집고 다닌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

둘째날 -- 벽소령 산장을 향해

성삼재에서 출발한 산행의 1차 목표점은 노고단, 불과 2km의 거리에 불과했지만 만만치는 않다. 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시작한 산행인지라 여간 고단한 게 아니다. 아내는 출발부터 삐걱거린다. 아직 어둠이 덜 가신 새벽길을 30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출발했지만 조금 늦어진다. 결국 노고단 산장에 와서 한잠 자고 가는 것이 약이라 생각되어 산장 마루바닥에 몸을 눕히니 금방 잠이 든다. 약 40분 정도 눈을 붙이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다. 지리산을 종주하려면 보통 산에서 2박 3일을 해야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산행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1박만 하고 경상남도 중산리까지 약 50km의 산길을 가야 하니 약간은 무리하더라도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산행의 1차 목표점은 벽소령 산장, 늦은 가을이라 그런지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의 산길은 이미 겨울로 접어든 느낌이다. 단풍은 그림자조차 없고 나무마다 덩그러니 낙엽 몇 잎 달고 불어오는 바람에 저항하며 지리산을 안고 서 있는 모습에 조금은 숙연해진다. 각 산마다 나름의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지리산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장중함이다. 마치 소의 잔등에 탄 듯 능선에 서서 바라보는 느낌이란..... 말문을 잇게 하는 육중함과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위용은 참으로 우리를 왜소하게 느껴지게 한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노고단을 출발해서 처음 몇 km는 아주 순탄한 코스로 이어져 비교적 산행을 쉽게 해 준다. 돼지평전이라 불리는 넓디넓은 길은 그저 광활한 대지를 가슴을 펴고 걷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임걸령을 앞두고는 본격적인 지리산의 매운 맛을 보여 주려는 듯 수없는 고갯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가쁜 숨을 쉬게 해 준다. 내심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리산 종주가 처음이면서 잊겨녕 잠까지 못 잔 아내가 과연 잘 견뎌내며 따라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데 의외로 잘 따라와 준다. 설악산은 여러 번 갔었고 지리산도 지난 봄에 중산리 코스에서 종일 비를 맞으며 천왕봉까지 왔다 간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장거리를 계획하고 가는 것은 처음이라 걱정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는데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걷는 모습을 보니 걱정스러우면

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다. 작은 풀뿌리와 조그마한 자연의 변화에도 쉽게 감탄하는 아내는 지리산의 장중함과 변화무쌍함 앞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런 아내를 보며 큰 기쁨을 느낀다.

임결령을 지나 반야봉 입구인 노루목, 다시 뱀사골 입구를 거쳐 토끼봉을 넘는 일은 아마 지리산 종주 코스 중 가장 난코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1,400m에서 1,600m의 고지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약 십여 차례는 반복해야만 오늘 점심을 먹기로 계획한 연하천 산장에 도착하는데 그 훨씬 전부터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니 어찌하랴, 그래도 참고 걷는 수밖에 없다. 중간중간 요기를 하며 걷기는 하되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노고단을 출발한 지 약 5시간이 지나 오후 1시쯤 연하천 산장에 도착하였다. 보통 사람의 등반속도보다는 약간 빠른 속도였다.

연하천 산장, 국립공원의 산장들 대부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까닭에 시설은 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으나 산꾼들끼리 만나는 오붓함은 사라지고 관리와 통제만 있는 조금은 삭막하게 변한 느낌이다. 연하천 산장은 전문산악인이 경영하는 조그만 산장으로 한가할 때는 지나는 산꾼들끼리 당귀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약 3개월 전, 반대편 중산리에서 출발하여 홀로 종주를 하며 역시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아내와 함께 도착해 흐르는 땀을 씻어내며 함께 점심밥상을 차리니 꿈만 같다. 산에서의 식사는 이제 거의 경지에 이른 듯 준비에서 식사완료까지 약 30분이면 충분하다. 준비해 간 햇반을 펄펄 끓는 물에 데우고 그 물에 다시 김치와 참치를 넣고 조금만 더 끓이면 맛있는 김치찌개, 식사준비 끝, 정말 맛있는 밥이다. 꿀떡꿀떡.

연하천 산장에 오면 오늘 일정의 약 4분의 3은 해낸 셈이 된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목표지점인 벽소령 산장까지는 코스도 비교적 순탄할 뿐 아니라 거리도 약 5km 정도로 2시간만 부지런히 걸으면 될 만한 코스이니 급할 게 없다. 쉬면서 천천히, 갈 때마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는 산장지기 산꾼하고 한참을 담소하며 따뜻한 산중의 가을 오후를 즐겼다. 아, 이런 편안함이.....

점심식사 후 연하천 산장을 출발하여 벽소령 산장까지 가는 길은 약 6km,

중간에 형제봉을 하나 넘기는 하나 그리 험한 코스는 아니다. 쉬엄쉬엄 걸어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리산 산중을 걸어가는 데 바람 한 점 없는 따뜻한 가을 오후의 햇살을 받은 산야는 너무도 고요하다. 산 아래 동네까지 훤히 내려다보이는 능선길은 비로소 지리산 종주의 맛을 느끼게 해 주는 코스이기도 하다.

벽소령에 오후 4시 반에 도착하니 왼쪽으로는 마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빨치산의 활동 근거지로 유명한 칠불사 코스가 내려다보인다. 이곳 벽소령에는 빨치산의 마지막 저항지라는 안내표지와 함께 이현상의 체포장소가 표시되어 있기도 하여 민족의 지난 역사가 조금은 쓸쓸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벽소령 산장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산장이다. 10여 년 전 이곳을 지날 때는 산장은 없었고 조금 더 지나 선비샘이라는 샘터만 하나 있었다. 연하천에서 세석 산장까지 무려 12km를 가야만 대피소가 있어서 잘못 출발했다가는 체력이 소진되어 자칫 고생하기 쉬운 고행의 코스이기도 하다.

여담 한마디.

1993년-그러니까 꼭 10년 전쯤-어느 봄날, 국회 속기과의 혈기방장한 남아들, 지금은 고인이 된 염덕훈 선배님과 박순필?박정호?김경중?허광현?김덕진, 그리고 필자가 의기투합하여 지리산 종주에 나섰다. 낭패를 본 코스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기억이 새로워지는 코스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벽소령 산장이 없었고 연하천 산장에서 출발하면 숙소인 세석 산장까지 거리가 12km였다. 연하천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니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는데 다음 코스인 세석 산장까지 12km를 갈까말까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려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무리였나보다. 몇몇 동행인들이 다운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것도 모르고 필자는 어련히 잘 따라오겠지 하면서 먼저 가서 저녁식사나 해 놓자는 심산으로 세석 산장까지 내달았다. 세석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7시, 저녁을 다 해놓고 여유 있게 일행이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밤 10시가 다 되도록 일행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길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플 텐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한참을 되짚어 올라가 보니 그제야 몇몇은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오다시피 하는데 모두들 침묵이다.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닌 썰렁함, 가이드가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 내

빼니 대원들은 어찌하란 말이냐는 무언의 항의였다.

순필, 정호 선배님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요? 그날 밤 세석 산장의 별들로 도배한 밤하늘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배님, 원수 갚으러 다시 한번 갑시다.

아내와 나는 벽소령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저녁식사를 하곤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전날 밤 한잠도 못 잔 까닭에 그냥 푹아떨어져서 다음날 새벽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새벽에 나와 지리산 능선에서 바라본 밤하늘, 그것 또한 장관이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에 올 때마다 항상 빗속을 걷곤 했는데 이날은 무척이나 쾌청했다. 도회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쾌함과 초롱한 별들, 멀리 보이는 아랫동네의 작은 불빛들.

셋째날 -- 천왕봉으로

아침에 출발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잊저녁에 숙면을 취한 까닭에, 또 이만큼 이루어 냈다는 자부심에, 그리고는 지리산의 장중함에 걷는 것이 그저 행복이다. 세석으로 향하는 길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선비샘을 지나 덕평봉, 연화봉을 넘어 약 6km, 울퉁불퉁 말 그대로 산길을 오르내려 가다보니 10시 반쯤 세석 산장 도착, 간단히 요기를 하고 다시 촛대봉을 향한 오르막길, 옛날에는 돌밭 길을 제멋대로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계단으로 잘 정비되어 마치 고층빌딩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계단길을 약 1km 가량 올라 촛대봉을 지나면 장터목까지는 순탄한 코스이다. 코스가 순탄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평화롭다. 가을 향기가 있다. 표현할 수 없는 향기이다. 낙엽이 지고 쌓여 질게 배어 나오는 향기이다. 코끝이 간질거린다. 아! 하나님, 당신의 작품입니까?

장터목 산장에 도착하여 역시 능숙한 솜씨로 인스턴트 북어국에 햇반을 곁들여 해치우는 점심식사. 장터목에서 천왕봉까지 2km, 제석봉을 지나 고사목지대를 지나는 길은 언제나 숙연함이다. 억만 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 언제나 말없이 서 있는 고목들, 온갖 풍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앙상하게 내뻗고 있는 나무들, 고지대에 올라서니 약간의 바람까지 불고 주

변의 풍경과 어우러져 정상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침잠한다. 통천굴을 지나니 곧바로 천왕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벗은 몸으로 서 있습니다.
무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반겨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뿜은 바위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천왕봉,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조금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하산하기 시작했다. 로터리 산장을 거쳐 중산리로 내려오는 코스, 여기서부터 5km, 여러 번 내려온 코스이다. 지리산 정상을 향해 가장 짧게 빨리 오를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다. 오후 3시 넘어 천왕봉을 출발하니 하산길 5km는 비교적 여유가 생긴다. 다만 체력이 많이 소진된 아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는 것쯤이야 하는 안도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로터리 산장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곧장 내달려 오후 5시 반쯤 중산리 매표소에 도착했다.

늦은 가을 저녁,
중산리 버스 정류소로 향하는 곧게 뻗은 신작로
배낭을 멘 긴 그림자
아내여, 고마우이

(전 국회속기사)

사 랑

김 영 서

사랑!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가?

그것은 정말 신이 인간에게 준 지상 최대의 선물인가?

언제나 모순을 낳는 동시에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랑!

사랑의 고뇌처럼 달콤한 것이 없고, 사랑의 슬픔처럼 즐거움은 없으며, 사랑의 괴로움처럼 기쁨은 없고, 사랑에 죽는 것처럼 행복은 없다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메이며 또 기다리는 걸까?

정녕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걸까?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은 손으로 닦을 수 있지만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닦아야 할까?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사랑을 품고 산다면.....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회장, 대구 달서구의회)

아, 이스탄불이여!

권 은 선

2003년 8월 1일.

2003년 시작과 함께 결정한 터키로의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깊은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이다 날이 밝았다. 터키로의 결정도 쉽지 않았지만 출발하기 10일 전에 출발일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져 무척 난감했는데 다행히 일이 잘 풀려 드디어 출발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짐을 하나씩 점검하고는 집을 나섰다.

집결장소에는 우리를 인천까지 데려다 줄 버스가 도착해 있었고 회원들도 하나 둘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17명 전원 집결. 우리는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면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전주에서 인천에 이르는 길은 순조로웠다. 인천공항이 눈앞에 나타나니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드디어 터키로의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입국수속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물품검사대를 통과하는데 내 카메라가방이 검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벨이 울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한 나는 '카메라밖에 안 들었는데.....'라며 허둥댔고 공항관계자는 건전지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나는 10일 동안 쓰고도 남은 양의 건전지를 샀고 그 건전지들은 품 나게 내 가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번 해외 여행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현지에서 사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도 소지하고 있는 터라 작은 가방 하나를 구해 가지고 회원들의 건전지를 모두 수거해서 다시 화물로 부치는 일을 끝내고 나니 휴~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이스탄불을 향한 첫걸음은 어려운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인천에서 방콕, 싱가포르, 다시 얼마 전까지 포성이 울렸던 두바이를 거쳐 이스탄불까지 무려 24시간의 비행은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이스탄불에 도착하기 전 하늘에서 바라보았던 멋진 일출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어서 잠시 간 비행으로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이스탄불의

청명한 아침 햇살은 우리 일행의 기운을 활기차게 복돋워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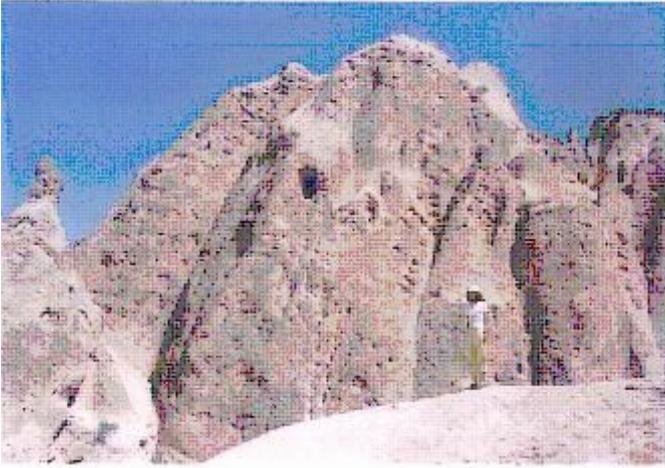
첫 촬영은 도시전체가 박물관이라고해도 손색이 없는 이스탄불에서 시작했다. 오스만터키가 콘스탄티노플 점령 후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뀐 이 곳은 마르마라해협에서 보스포러스해협을 거쳐 흑해로 나가는 관문에 위치해 많은 나라들의 정복의지를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했다. 때문에 변영과 함께 끊임없는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 해협 주변에 성벽을 축조했는데 현재는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일부만 복원된 채 옛 건축물과 함께 그 옛날 화려했던 오스만터키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참르자언덕에 오르면 보스포러스해협의 아름다움과 그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지하 물 저장고의 거대함, 솔로몬을 앞질렀다고 유스티니안 황제가 외친 성 소피아의 아름다움에 놀라면서 블루모스크에서는 터키인과 함께 기도도 해 보며 하루 일정을 마쳤지만 우리 일행은 다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세계 제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넴루트산으로 가기 위해 말라트로 가야 했다.

예정대로라면 이스탄불에서 밤 10시 5분 비행기로 출발을 했을 텐데 조금 늦어져서 우리 일행은 11시에 말라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시간 40여분의 비행이 끝나고 무사히 착륙하자 터키인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리 일행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다.

이렇게 어렵사리 찾아간 넴루트산은 우리 일행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열리는 시간을 지나 아침이 된 후에야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안티오쿠스 1세가 자신을 위해 세운 고분인 넴루트산은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다. 넴루트산은 작은 돌을 50m 높이로 쌓은 후 그 위에 2m 높이의 신들의 두상을 세워 해질녘 붉은 석양빛을 받은 두상이 장관이란다. 아쉽지만 우리 일행은 그 장관의 볼거리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카파도키아로 향했다.

넴루트산을 내려온 이후 우리 일행은 길고도 긴 버스여행을 했다. 카흐타에서 하룻밤을 묵고 카파도키아에는 밤 10시가 되어 도착했다. 우리 일행이 도착한 것이 밤시간이라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며 우리에게 보여준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요정의 굴뚝이라고도 하는 카파도키아에서 우리는 화산재가 바람, 비 등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한 터키인들을 만



날 수 있었다. 바위속을 파내고 집으로 사용해 현재도 동굴호텔이 남아 있는 이곳은 자연 앞에 미약한 인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낙타바위, 비둘기계곡, 무엇보다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지

하도시 카이막클르는 지하 8층 규모에 방이 무려 1,200개나 된다. 데린쿠유에는 1,200개 이상의 방이 있고 전체가 12층 규모로 1만 명 이상이 피신하여 생활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게다가 이 두 지하도시를 잇는 지하도로가 10km. 한쪽 지하도시가 공격을 받을 경우 반대편 지하도시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중간중간에 도로차단 바위까지 설치해 놓아 당시 터키인들의 지혜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것만은 잊지 않으려고 했는지 지하도시 곳곳에서 예배당을 볼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잊지 않으려 했던 그들이 내게는 정말 커보였다. 이 곳은 지형의 독특함으로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지이기도 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내게 충격으로 와 닿는 순간, 우리 일행은 파묵칼레로 이동하고 있었다. 넴루트산에서 내려올 때는 끝없이 황무지만 펼쳐지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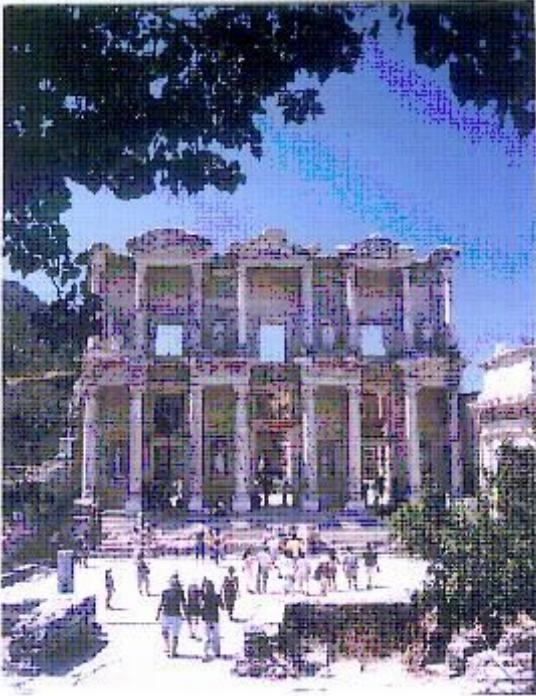
어느새 밀 수확이 끝난 들판이 펼쳐져 하루종일 달려도 밀밭뿐이었다. 건기로 잡초조차 말라 있는 터키였지만 참 땅은 넓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그렇게 밀밭 사이를 달려 도착한 파묵칼레는 멀리서 보니 눈 덮인 설원이었다. 자연의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파묵칼레는 온천수에서 탄산가스가 증발 한 후 남은 석회찌꺼기가 온 산을 덮어 멀리서 보면 설원의 풍경을 자아내는데 이 곳 온천수는 치료효과가 있어 치료차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온 사람 중 나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치료를 했고 그러다 그곳에서 죽게 되면 자신들의 장례관습에 따라 매장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지방의 무덤이 산재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곳이 되었는데 많은 무덤들이 도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현재 파묵칼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노천온천은 허용된 지역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나 호텔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어 온천수에 몸을 담근 후 바라본 밤하늘, 별들이 총총히 떠있던 그 밤하늘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한편, 터키는 현재 기나긴 IMF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은 우리 일행을 경악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1달러 대비 140만TL(터키 리라)이라니..... 유료화장실 이용료가 50만TL, 국제우편료(엽서) 100만TL, 엽서 한 장에 20만TL, 100달러를 바꾸면 억 단위가 내 손에 쥐어진다. 적응이 안 된 우리 일행은 화장실 앞에서 발을 구르기도 했지만 운이 좋으면 단체할인을 내세워 깎는 알뜰함(?)까지 발휘했다. 하지만 17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터키의 모든 화폐에는 단 1명의 초상화만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터키의 초대대통령 무스타파 케말이다. 그는 어려운 터키어 대신에 유럽화를 위해 알파벳으로 문자를 개혁했고 학교등교 시 여성들의 차도르 착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이름만 있지 성이 없었던 여성들에게 성을 지정하게 했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자 수도를 앙카라로 지정하는 등 현대 터키사에서 그의 업적은 너무도 많았고 지금도 터키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에 그의 후손들은 언젠가 오스만터키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믿는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어

떠했을까, 에게해변과 올리브나무만 하루종일 펼쳐지는 들판을 달리면서 깊은 생각에 젖어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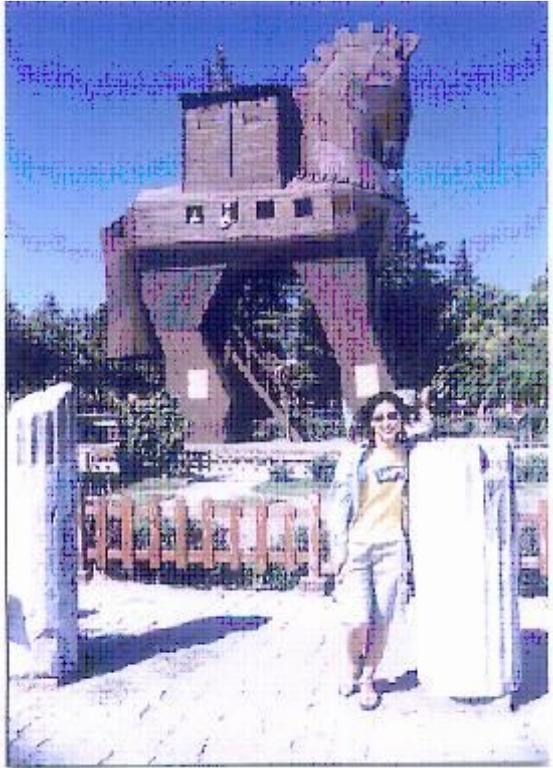


터키는 참 넓다. 가는 곳마다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에페소는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헬레니즘 시대의 건축물로 옛 도시국가 시절을 보여주었다. 도시계획자 히포다무스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성공적인 도시계획이 적용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2만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세루시우스 도서관, 사도 요한이 성모마리아와 딸년을 보낸 성모마리아의 집과 사도 요한의 묘가 있는 성요한교회를 둘러볼 때는 섭씨 30도

를 훌쩍 넘는 한여름의 따가운 날씨여서 구경하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리석에서 반사되는 열 때문에 체감온도는 40도쯤 되는 듯 했다. 이곳을 둘러보려면 한낮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따가운 햇볕 아래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일이 힘들었지만 기원전 2세기에 이런 완벽한 도시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우리 일행을 충분히 감동시켰고 더위를 이기게 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물 공급 시스템의 일부인 흙으로 만들어진 물 파이프나 의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면 연회를 가져 의원들이 술 마신 후에도 결정한 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들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부러움마저 들었다.

다음 행선지는 호머의 저서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에 등장하는 차낙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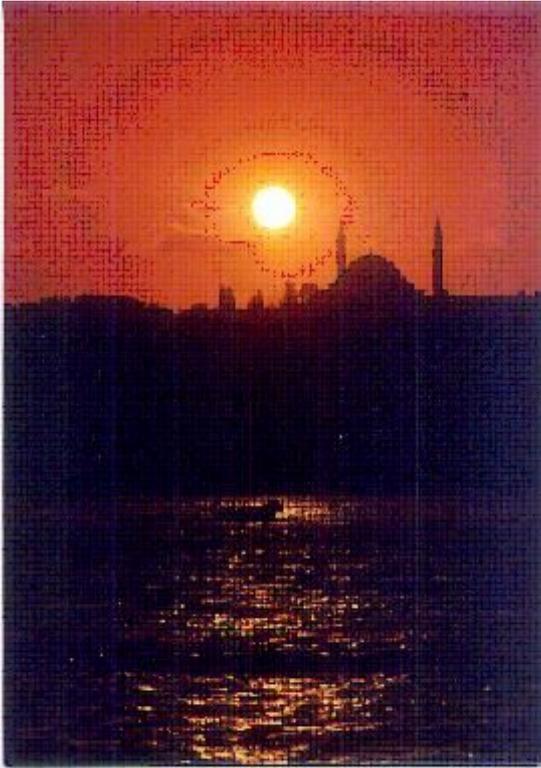
하지만 사람들은 트로이목마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듣는다. 정착단계가 겹겹이 쌓여진 아홉 개 층으로 되어 있어 고고학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돌이 한 세기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전에 쓰였던 것을 다시 쓰고 모자라는 부분만 보충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건설하고를 아홉 번 했으니 그 아홉 개의 도시를 다시 재현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곳은 계속되는 전투로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나던 곳이다. 현재는 공동묘지와 전쟁박물관이 그 옛날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 주고 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첫날의 감동이 되살아나고 있다. 며칠을 터키에 머물렀더니 제법 익숙해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눌 수 있었다. 터키 사람들은 참 밝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무조건 “beautiful!”이라고 몇 번 해 주고 웃어주면 아이들조차도 먹던 과자를 스스럼 없이 나눠주는 정도다. 이렇게 아이들이 주는 과자는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이 좋다. 왜냐, 서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행에서의 즐거움은 뭐니뭐니해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만큼 좋은 곳도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이스탄불 최대시장인 바자르시장 내 은제품 가게 총각 점원이 어설픈 한국말로 나에게 “이쁘다!”를 몇 번이나 말했던 일이다. 세상에! 난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나는 ‘공주병’을 어찌지 못하고 목걸이 하나를 골랐다.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보스포러스해협에서 본 일몰이다. 우리 일행의 탄성을 가득 담고서 저편으로 사라져간 저 해가 다시 나의 조국을 비추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번 여행을 위해 나는 6개월을 준비했다. 물론 출발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여행기간 내내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해 너무도 즐거웠고 여행에서의 모든 순간이 내 마음 속에 한편의 영화가 되어 남아 있다.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훗날을 기약하면서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나긴 비행길에 올랐다.

돌아오는 여정에서 여행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어떤 곳이든 여행은 나를 더욱 성숙시키고 나에게 많은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동안은 정말 내가 살아 있음이 기쁘고 모든 일에 열정이 샘솟는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또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는지도 모르겠다. 에너지가 바닥난다고 느낄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나는 또 어디론가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스탄불이 내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동안은 떠나지 않으리라. 내 가슴속의 이스탄불을 위하여.....

(전주광역시의회)

나는 이제 더 이상 백수가 아니다.

김 경 재

나는 이제 더 이상 백수가 아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데 게다가 현재 나는 국회속기사 되어 있다. 지금은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고 불분명했었다.

지방대학이지만 졸업만 하면 웬만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대학 4년을 마치고 사회로 나서게 되었다. 98년 여름 IMF 한파와 함께 나의 백수생활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마도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백수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태해진 나 자신을 위해, 또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이든 자격증 하나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컴퓨터속기 광고를 보게 되었다. ‘고수익 보장, 프리랜서 활동, 향후 몇 년간 몇 만 명 필요, 컴맹도 가능……’ 당시 내가 살던 원주에는 속기학원이 없었고 교육원이라고 하면서 속기자판 판매를 주로 하는 곳만 있었는데 일단 그 곳을 찾아갔다. “하루에 2시간씩 6개월만 하면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교육원 관계자의 말을 듣고 바로 70여만 원이나 되는 자판을 할부로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속기의 인연은 시작이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했다. 6개월이라는 그 시간도 단축시켜 보겠다고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한 적도 있었다. 무지가 부른 무모함이라고 할까, 미련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4개월 정도가 지났을 즈음 더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자 혼자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기서 그냥 그만 둘까, 서울에 있는 속기학원을 다닐까, 한참 고민하던 차에 운 좋게도 원주에 속기학원이 생겼다. 나는 바로 등록을 했고 본격적인 속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2000년 10월에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생각처럼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얼마 후 CAS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연수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재빨리 신청을 했고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실무연수를 받던 중 2001년에 국회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느껴졌다. 실무연수를 마치고 고민 끝에 나는 서울에 남아서 고시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속기를 공부할 때도 힘들었지만 노랑진에서 학원을 다니며 보낸 6개월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학과공부, 백수, 타지 생활, 매일 혼자 지내야 하는 외로움. 하루종일 사람들과 한 마디 말도 섞지 않았던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외롭고 비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런 날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해 준 밑거름인 것 같다.

2001년도 국회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에는 합격했는데 안타깝게도 2차 실기시험에는 불합격. 그동안에는 무엇인가 목표가 있어 그것을 향해 열심히 뛰었는데 2차 시험에서 낙방하고 나니 다시 백수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래서 일단 국회시험은 접어둔 채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속기사무소, 학원강사를 거쳐 2003년 4월부터 원주시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국회속기사에 대한 꿈은 접은 게 아니었다. 2003년 국회속기사 채용공고가 났고 내 마음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국회시험은 다가오는데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는 일이 많아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가다 보니 ‘그냥 의회에서 평생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고개를 숙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오기였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 나이제한에 걸려 2003년도 국회시험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사무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낮시간을 이용해서 속기연습을 했고 퇴근 후에는 독서실로 향했다. 예전에 고시학원을 다니며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행히 1차 필기시험 합격. 그 당시 나와 같이 시험을 치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1차 합격자가 19명밖에 되지 않은 것이 나에게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한고비는 넘겼고 남은 건 실기시험. 다니던 직장에 국회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터라 연가를 내고 실기시험을 치렀다. 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 아는 사람을 통해 합격자 8명 중 남자가 1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50 대 50. 그 얘기를 듣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자 명단에서 내 수험번호와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정말 국회에 합격했던 말인가?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더니.....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5개월째. 들어오자마자 국정감사를 다녀오고 정기국회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신입이라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 당연히 실수도 많았다. 주무님,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정기국회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선배님들 말씀 잘 새겨들으며 열심히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속기사를 100이라고 할 때 지금의 나는 한 10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 나머지 90은 이제부터 여러 선배님들한테 하나하나 배워가며, 또 나 스스로 더욱 노력하며 채워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10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떨까?

연이은 야근에다가 원고더미에 쌓여 허덕일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왜? 이제 나는 백수가 아니니까. 나 자신에게 속기사라는 칭호를 붙이기는 아직 쑥스럽지만.....

(국회사무처 속기1과 2담당)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성 지 연

국회속기사가 되어 속기계에 글을 쓴다는 것, 참 오랫동안 꿈꾸었던 일이다. 국회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 때마다 다음에 내가 속기계에 글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래도 해냈다고 써야지 하면서 혼자 헤헤거리며 공부하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공부할 때는 쓸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무슨 말부터 쓸까, 그래 일단 속기를 시작하게 된 얘기부터 해 보자. 대학 4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내 진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여 며칠째 방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을 때였다.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컴퓨터속기 광고, 그 순간 그 광고의 한 귀절이 마치 번개처럼 내 뇌리에 꽂혔고 새로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 버렸다. 바로 이거야!

그렇게 시작한 속기는 그동안 방향을 잃고 헤매던 나에게 하나의 강한 목표가 되었고 그 확실한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되는 나는 마냥 행복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안에서도 피곤한 줄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웬지 모를 뿌듯함에 나는 더욱 힘이 났다. 워드 치는 것을 좋아해서 그 어떤 오락보다 한메타자를 더 재미있어 했던 나에게 속기는 정말 퍼펙트 그 자체였고, 특히 거의 못 따라칠 정도로 빨리 흘러나오는 낭독을 따라치고 있을 때의 그 짜릿한 스틸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속기의 재미에 속 빠져든 나는 열심히 매진할 무

엇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취직이 되든 안 되든 너무 행복했었다. 그렇게 오로지 속기에만 몰두한 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1급 자격증을 딴 나는 바로 대전지방법원에 취직이 되었다. 그러나…… 속기에 몰두했던 2년 동안 나는 오직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법원에서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했다. 공무원보다는 속기사란 직업에 더 매력을 느껴 속기를 선택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법원서기보와 지방법원 속기사의 대우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었다. 속기는 정말 배우기 어렵고, 정말 많은 지식을 요하는 전문기술인데 어떻게 모두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혔다. 한창 IMF 시기라 내가 법원을 그만두는 것을 모두들 말렸지만 나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법원을 나왔다. 그리고는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결과는 낙방. 그것도 필기에서. 내가 필기에서 떨어지다니? 필기시험보다는 실기시험 위주로 국회시험을 준비했던 나는 1차 필기시험 낙방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큰 소리 땡땡 치면서 법원도 그만두고 내 모든 것을 걸어 준비했던 시험인데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것이 허무했다. 최고의 속기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속기라는 것을 시작해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나, 나는 좌절하고 또 좌절했다. 한동안의 좌절과 방황 끝에 나는 결국 속기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고는 속기자판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속기는 철저히 잊혀져갔다. 아니, 잊으려고, 잊어버리려고 이를 악물었다.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도 TV나 영화에서 연설문같은 것이 낭독될 때면 내 손가락은 어김없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내 손가락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하던지……

그 후로 나는 속기로 잃어버린 시간만큼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회사에 취업해서 휴일도 없이 독하게 일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에 뛰어들어 한참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몇 년 후,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대전시의회 속기사가 되어 있었다. 그

렇게 잊어버리려고 했는데도 속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은 역시 속기사의 길이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근무하면서 결혼을 했고 예쁜 딸 소현이도 낳았다. 이렇게 대전시의회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국회 속기사 채용시험 공고가 났다. 내 심장은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내 꿈, 속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다부지게 먹었던 내 꿈의 편린들이 하나씩 들쭉 내 심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속기를 시작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다졌던 내 의지들이 몽클몽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꼭 붙어야 했다. 내 꿈을 위해서, 그리고 흠어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국회시험은 참으로 기준을 알 수가 없었다. 필기에 치중을 해야 하는지, 실기에 치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둘 다 잘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는데 필기와 실기 둘 다 수준급의 실력을 유지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굳은 결심으로 시험공부를 시작했지만 예쁜 얼굴로 엄마품을 찾는 딸아이를 시어머니 손에 맡긴 채 국회시험 준비에 전념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게다가 대전시의회가 정기회로 한창 바쁜 시기여서 나만의 공부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누가 그랬던가?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공이 더 빛이 나는 법이라고. 어려움이 더할수록 나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드디어 내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속기를 처음 시작하며 가졌던 꿈. 드디어 그 꿈을 이룬 것이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고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었던 국회에 들어와서 보낸 4개월여의 시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솔직히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 말이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사실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아,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구나, 어떤 법안이 처리되었구나 이 정도만 알았고 일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 입사해 보니 세상에 무슨 회의가 그렇게도 많은지, 또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는지, 일의 양도 장난이 아니고 모든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특히나 소위원회가 열릴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 나름대로는 지방의회에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속기업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실무에 임해 보니 배우고 익혀 나가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제몫을 다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마냥 존경스러웠다. 우리나라에 국회속기사와 같은 공무원들만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을 칭찬해 마지않을 텐데.....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적응된 신참생활. 정기회는 끝났지만 곧 이어진 임시회에다가 서툰 일꾼으로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양팔 벌려 반겨주는 딸이 있고 말없이 웃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 행복하다.

쑥스럽지만 지면을 통해서나마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국회속기사가 되고자 한 꿈을 이룬 지금, 이제 내가 새롭게 가져보는 첫 번째 꿈은 내 딸 소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꿈은 국회속기사로서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커리어우먼이 되는 것이다. 새해에는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또 다른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4담당)

◆ 협 회 동 정 ◆

☒ 이사회 소식

· 제193차 이사회(2003. 10. 9)

보고사항으로는 ▲지방의회속기워크숍 참가(03. 6. 21-03. 6. 22) ▲한글속기(컴퓨터분야) 자격검정 전문가회의(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참가(03. 9. 25)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03. 9. 26) ▲법원속기사 모임 발족(03. 9. 27) 등이 있었음.

이어서 부의안건인 ▲2003년도 사업집행에 관한 건을 심의.

이사장 및 각 부 집행이사들은 4/4분기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일단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각 부별로 사업계획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함.

· 제194차 이사회(2003. 10. 15)

▲속기학술세미나(사업부), ▲속기학술연구(연구위원회), ▲속기계 및 소식지 발간(홍보부), ▲전국속기경기대회(자격심사위원회), ▲속기실무워크숍(총무부), ▲속기정보화사업(회원부) 등 각 부별 2003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일시는 2003. 12. 20(토) - 2003. 12. 21(일), 장소는 단양 대명콘도, 자세한 세부일정은 이사장과 사업이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정. 나머지 사업들도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대로 2003년 12월까지의 집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제36회 정기총회

2003년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됨.

2002년도 결산승인의 건,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됨. 이어서 임원선임의 건과 감사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신임 이사장에 홍순관 이사를, 신임 감사에 최성주·유순태 회원을 선임함.

☒ 제11회 속기학술세미나

2003년 12월 20일·21일 양일에 걸쳐 충청북도 단양대명콘도에서 총 13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주제발표로는 ▲한국 정치제도 연구-제도, 행위 그리고 정치사(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자치입법의 의미와 기본원리(김종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사법부의 속기 현황 및 전망(정준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있었음.

☒ 제11회 속기경기대회

2003년 12월 20일 국회 헌정기년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됨.

속기경기대회 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임.

◆ 회원 동 정 ◆

감사합니다.

- 최성주, 조영기, 고경효, 이순영, 안기철 회원님(국회사무처)께서 발전기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승진/임용/전보/파견/수상 · 축하합니다.

- 홍순관 이사장님(국회사무처) : 2급으로 승진(2003. 6),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보임(2003. 8)
- 김치원 회원(국회사무처 이사관) : 국외직무훈련 파견, 미국 조지타운대 (Georgetown University)(2003.3)
- 고경효, 이순영, 안기철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사무관으로 승진(2003. 3)
- 백순정, 김미라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사무관대우로 승진(2003. 7)
- 이해정, 이봉선, 최윤정, 강지유, 정숙, 정영희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주사로 승진(2003. 11)
- 윤미영, 이수경, 최혜련, 김지숙, 박소연, 한연미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서기로 승진(2003. 9)
- 김경재, 김윤정, 김현진, 홍효민, 고영린, 성지연, 제신지, 황유진 회원 (국회사무처) : 속기서기보시보로 임용(2003. 8)
- 신지애 회원(영월군의회) : 원주시의회로 전보(2003. 7)
- 김성집 회원 : 계룡시의회로 전보
- 원은주 회원(원주시의회) : 신규 임용(2003. 5)
- 김상희 회원(영월군의회) : 신규 임용(2003. 8)
- 조미영 회원(대구광역시의회) : 신규 임용(2003. 5)
- 이정숙 회원(대구광역시의회) : 신규 임용(2003. 8)
- 조영심 회원(대구 서구의회) : 신규 임용(2003. 6)
- 최재숙 회원(대구 동구의회) : 신규 임용(2003. 10)

- 윤미영, 조희경 회원(대구 수성구의회) : 신규 임용(2003. 9)
- 정경희 회원 : 대구 남구의회로 전보
- 김기분, 박영희 회원(대구 수성구의회) : 행정직으로 전직
- 안기철 속기사무관(국회사무처) : 대통령표창(2004. 1)
- 김은숙 회원(국회사무처) : 국회의장상(2004. 1)
- 조선욱, 이미정, 김미라 회원(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총장상(2004. 1)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 고경효, 이순영, 안기철 회원(국회사무처) : 신입관리자 교육과정 이수 (2003. 5)
- 조미경, 김기선, 남미경, 서현숙, 최윤정(국회사무처) : 국외자율훈련

복귀 · 반갑습니다.

- 이승철 서기관(통일연수원) : 국회사무처 문화관광위원회(2004. 1)
- 이주성 서기관(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 정무위원회(2004. 2)

퇴직/휴직 · 수고하셨습니다.

- 신희동 회원(국회사무처) : 퇴직(2003. 6)
- 박금선 회원(국회사무처) : 퇴직(2003. 7)
- 김은화 회원(대구 남구의회) : 퇴직(2003. 9)
- 이경숙 회원(국회사무처) : 육아휴직(2003. 11)
- 제신지 회원(국회사무처) : 병가휴직(2004. 1)

결혼 · 축하합니다.

- 주정순 회원(국회사무처) : 결혼(2003. 5)
- 정영희 회원(국회사무처) : 결혼(2003. 6)
- 정향인 회원(국회사무처) : 결혼(2003. 8)
- 박윤희 회원(국회사무처) : 결혼(2004. 1)

■ 편집후기

이번 속기계 발간은 예산사정, 정기국회 등과 맞물려 준비하는 부장과 부원들이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예요. 발군의 실력으로 거뜬히 해 내고 말았잖아요.

속기인 파이팅! 홍보부 파이팅!

- 蘭 -

이번에도 역시 허둥지둥 서두르며 원고를 넘겼다, 원고를 넘기고 나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 40호는 정말 잘 꾸며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잘 인쇄되어 나올 수 있을지.....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으니 힘을 내서 다시 준비해 봐야겠다.

- 文 -

이번 40호 속기계 작업을 하면서 이정구 선배님께 원고 청탁을 드렸었다. 작년에 이어 너무나도 흔쾌히 들어 주신 것, 선배님의 많은 작품을 읽어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 글이 말보다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 白 -

속기계의 권호가 늘어갈수록 책임감이 더해진다. 조금씩 나은 속기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40호를 발간하며 41호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 崔 -

매번 편집후기를 쓰지만 그 어떤 기사보다도 가장 쓰기 힘든 것이 편집후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발간된 책에 가장 최선을 다했을 때만 편집후기다운 편집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 손이 자꾸 멈칫대는 것은 왜일까...

내년 이맘때쯤에는 나도 속기계도 더욱 풍성해져 있기를 바란다.

- 奉 -

또 한 권의 속기계가 나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른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해준 작업이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속기계와 함께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다.

- 香 -

< 속기요금표 >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300,000원
녹 음 재 생	1 시 간 당	350,000원
전 문 분 야	1 시 간 당	350,000원
외 국 어 속 기	1 시 간 당	400,000원
요 점 속 기	1 시 간 당	2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50,000원씩 가산한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협회의 직인이 없는 요금표는 무효임.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국회사무처 속기과내)
 전화 : 788-2371 ~ 7

☞ 회비 · 발전기금 납입 안내 ☞

-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 협회발전기금 : 3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는 회비납부 의무가 평생 면제됨.
- 보 낼 곳
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앞
회 비 : 농협 036-01-087944 정 속(협회재정부장) 앞

◎ 투고를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속기과) (02) 788-2342, 2442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www.steno.or.kr)에 들어오시면 협회소식 및 속기계 · 소식지 등 협회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회원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다양한 정보공유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읽을거리와 회원소식, 회원논단, 인터뷰 등 회원들의 공간을 대폭 확대하였으니 우리들의 공간인 홈페이지가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www.steno.or.kr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관련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협회 홍보부 (788-2374)